

# KAN AUCTION

32<sup>nd</sup> AUCTION WITH KOREAN ART

2024. 4. 25<sup>THU</sup>





# KAN AUCTION

32<sup>nd</sup> AUCTION WITH KOREAN ART

경매 AUCTION

2024. 4. 25(목) 오후4시

전시 PREVIEW

2024. 4. 15(월) — 4. 24(수)

건국빌딩 건국관1층 칸옥션 전시장

 KAN Auction



## NOTICES

### 공지사항

<b>경매약관</b>	<p>간옥션 미술품 경매는 간옥선의 약관 및 공지사항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응찰 희망자는 반드시 간옥선의 약관과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응찰을 희망하시는 분은 프리뷰 기간 중 본인의 책임 아래 작품의 상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옥션은 응찰자가 직접 작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매도록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합니다.</p>
<b>회원가입</b>	<p>간옥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간옥선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가입 신청은 간옥션 홈페이지와 경매도록에 첨부되어있는 회원가입 신청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십시오.</p>
<b>응찰</b>	<p>응찰 희망자는 간옥선의 경매약관에 따라 현장응찰,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응찰 및 전화 응찰 신청은 경매 1일 전 오후 7시까지 등록해주시야 합니다. 모든 응찰 관련 내용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면, 현장 및 전화 응찰자가 동일 금액으로 응찰 한 경우 서면응찰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서면 응찰이 동일한 금액으로 중복될 경우 먼저 응찰서를 제출한 회원에게 낙찰됩니다.)</p>
<b>수수료</b>	<p>구매 수수료는 낙찰가의 15%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응찰시 수수료를 감안하신 후 응찰해주시기 바랍니다.</p>
<b>낙찰대금결제</b>	<p>낙찰자는 약관 및 공지사항에 따라 낙찰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총 구매대금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간옥션과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11-338178 주식회사 간옥션</p>
<b>기타소득세(양도소득세)</b>	<p>2013년부터 개인이 서화, 골동품을 양도할 때, 그 양도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라도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p>
<b>경매작품의 보관 및 운송</b>	<p>낙찰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경매 물품을 인수하셔야 합니다. 낙찰자가 직접 방문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미술품의 특성 상 전문 운송회사를 이용하셔야 하며 운송비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작품 배송 일정에 관해서는 간옥션과 낙찰자가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p>
<b>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안내</b>	<p>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시행됩니다. 관련 법에 의거하여 수수료와 부가가치세(VAT)의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 시행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 GUIDE

### 안내사항

간옥선 경매에 출품된 모든 작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출품되었습니다. 간옥선은 작품에 포함된 각종 정보와 부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작품 감상 및 응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매 도록에 제공된 사항들은 응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간옥선은 그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응찰 희망자는 프리뷰 기간 중 작품 상태와 도록에 포함된 정보 등을 본인의 책임 아래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도록에 실린 작품을 설명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정보 이외의 도록에 추가된 설명은 객관적 사실만을 서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호	작가의 대표적인 아호를 성명 앞에 쓰며, 한글과 한자를 함께 표기합니다.
작가명	작가의 성과 이름을 쓰며 한글과 한자를 함께 표기합니다.
생몰년	작가의 출생과 사망년도를 표기하며 -는 현재 생존, ?는 미상을 나타냅니다.
전傳	관서나 인기가 없으나 작품의 경향(필치, 구도, 채색) 등이 해당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傳을 사용합니다. 위창 오세창, 영운 김용진, 송은 이병직, 소전 손재형 등 감식안을 신뢰할 수 있는 선학의 배관, 제발, 소장인(감장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傳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품명	기존의 작품명 등을 참고하며, 작품명이 없을 때는 시의 제목, 작품의 내용, 화제 등을 참고하여 표기합니다.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圖)는 생략합니다.
제작시기	간지로 된 것인 서기(간지)로 표기하며,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몇세기로 표기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월, 일까지 표기합니다.
재질, 재료, 기법	작가가 어떤 바탕(종이, 비단, 모시, 캔버스, 패널 등)에 어떤 재료(먹, 수묵, 채색, 유채 등)를 사용하여 어떤 기법으로 제작했는지 표기합니다.
크기	평면 : 세로x가로 cm 입체 : 도자기 - 고(높이)x구경(입지름)x저경(밑지름)cm 가 구 - 고(높이)x세로(깊이)x가로(폭) 기 타 - 얇고 길거나 굴곡이 많은 작품(조각, 횃대 등)은 최대길이만, 같은 작품이 여러 점일 경우는 대표적인 것만 표기합니다.
형태	작품을 꾸민 방법을 기록합니다.예) 액자, 족자, 병풍, 가리개, 책, 배접 등
본관, 자	작가의 본관을 기록한 후, 표시 뒤에 대표적인 자호를 기록합니다.
추정가	회사가 미술 시장의 거래가격, 희소성, 자료의 가치, 미술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가격입니다. 추정가는 응찰의 참고 자료이며 회사가 보증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추정가는 낙찰가와 무관하며, 회사는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품해설	관람자와 응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합니다.
출처, 감정서	작품수록 문헌의 서지사항, 감정서, 작품 소장 이력과 출처, 문화재 지정(국보, 보물 등)번호 등을 기록합니다.
탈초, 번역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경매 도록에 탈초, 번역이 되어있지 않은 작품에 대해 간옥선을 통해 탈초,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INDEX**

색인

**서·화 (작가명 가나다순)**

경봉스님 鏡峰 靖錫 019  
 권동수 石雲 權東壽 003, 022  
 김경원 澗月 金景源 063  
 김규진 海岡 金圭鎭 018, 054, 064  
 김대중 後廣 金大中 126  
 김돈희 惺堂 金敦熙 004  
 김병국 穎漁 金炳國 030  
 김병기 思穎 金炳翼 030  
 김성근 海士 金聲根 005  
 김수항 文谷 金壽恒 033  
 김수홍 退憂堂 金壽興 033  
 김식 退村 金埴 070  
 김영근 勝山 金泳根 030  
 김영기 靑岡 金永基 056  
 김영삼 巨山 金泳三 126  
 김옥균 古筠 金玉均 008  
 김용수 首雲 金龍洙 094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鎭 001, 049, 116, 117  
 김원 金源 121  
 김응원 小湖 金應元 009, 015, 059  
 김응현 如初 金膺顯 020  
 김정희 秋史 金正喜 024, 025, 026, 028  
 김종필 雲庭 金鐘泌 123, 124, 126  
 김충현 一中 金忠顯 013, 017  
 김태석 惺齋 金台錫 010, 012  
 김학수 惠村 金學洙 115  
 김흥경 急流亭 金興慶 032  
 노수현 心汕 盧壽鉉 107  
 민경갑 西山 閔庚甲 023, 109, 118  
 민종태 守谷 閔鐘泰 132  
 박두진 兮山 朴斗鎭 007  
 박래현 雨鄉 朴峽賢 111  
 박문수 耆隱 朴文秀 037  
 박세당 西溪 朴世堂 038  
 박승무 深香 朴勝武 066, 113  
 박영선 朴泳善 120  
 박정희 中樹 朴正熙 125  
 박태보 定齋 朴泰輔 038  
 배렴 霽堂 裴濂 055, 067  
 변관식 小亭 卞寬植 103  
 변시지 宇城 邊時志 122  
 성재휴 豊谷 成在休 051  
 손재형 素荃 孫在馨 002

송수남 南天 宋秀南 095, 100  
 송시열 尤庵 宋時烈 033  
 송영방 牛玄 宋榮邦 046  
 송준길 同春堂 宋浚吉 033  
 숙종대왕 肅宗大王 040  
 신영복 牛耳 申榮福 119  
 신정왕후 神貞王后 043  
 심경택 沈敬澤 030  
 심열 南坡 沈悅 033  
 심응태 沈膺泰 030  
 아사카와 노리타카 淺川伯教 061  
 오겸 知足庵 吳謙 033  
 오세창 葦滄 吳世昌 016, 021, 058  
 오일영 靜齋 吳一英 048, 085  
 옹방강 翁方綱 029  
 왕세정 王世貞 032  
 윤경 惲敬 031  
 유구 臨汝齋 柳 奎 033  
 유길준 矩堂 兪吉濬 015  
 윤문거 石湖 尹文舉 033  
 윤선거 美村 尹宣舉 033  
 윤순거 童土 尹舜舉 033  
 윤증 明齋 尹拯 033  
 이광사 圓嶠 李匡師 034, 035  
 이구 李絳 033  
 이규선 南溪 李奎鮮 062  
 이규옥 潤齋 李圭鈺 110  
 이기우 鐵農 李基雨 014  
 이만성 歸樂堂 李晩成 033  
 이상범 靑田 李象範 108  
 이승만 李承晩 010  
 이영익 信齋 李令翊 036  
 이용우 墨鷺 李用雨 076  
 이의철 李宜哲文菴 033  
 이의현 李宜顯陶谷 033  
 이재 陶菴 李緯 033  
 이재 密菴 李栽 033  
 이풍익 六玩堂 李豊翼 030  
 이하응 石坡 李昱應 027, 090  
 이한복 無號 李漢福 050  
 이현일 葛庵 李玄逸 033  
 이황 退溪 李滉 039  
 장우성 月田 張遇聖 079, 112  
 정동환 鄭東煥 092

정면규 鄭冕奎 092  
 정술원 斗山 鄭述源 097  
 정운면 東岡 鄭雲勉 101  
 정조대왕 正祖大王 041  
 정학교 夢人 丁學教 011  
 정학연 酉山 丁學淵 030  
 정휴탁 農山 鄭休鐸 092  
 젠소 지로 膳鉦次郎 137  
 조목 月川 趙穆 039  
 조석진 小琳 趙錫晉 058  
 조원석 趙元錫 030  
 조희룡 又峯 趙熙龍 089  
 지창한 白松 池昌翰 098  
 차지철 車智澈 127  
 채용신 石芝 蔡龍臣 092  
 최우석 鼎齋 崔禹錫 057, 080  
 츠지 가코 都路華香 060  
 허건 南農 許楫 047  
 허련 小癡 許鍊 052, 078  
 허백련 毅齋 許百鍊 081  
 허형 米山 許滢 053

**서·화 (작가미상 가나다순)**

무릉도원 武陵桃源 065  
 산수 山水 073, 075, 084, 093  
 산수 山水 : 지직화 紙織畫 077  
 산수팔곡병 山水八曲屏·시고 詩稿 6폭 114  
 송하고사 松下高士 105  
 송학 松鶴 074  
 수하탄금 樹下彈琴 : 지두화 088  
 숙조 宿鳥·시고 詩稿 082  
 운룡 雲龍 086, 104  
 유포양육은 乳哺養育恩 083  
 읍화재 挹華齋 006  
 정동환 鄭東煥 부부 초상 夫婦 肖像 092  
 주유관폭 游觀瀑 102  
 책가 冊架 069, 087  
 충충·신신 068  
 호남도리지도 湖南道里地圖 099  
 호작도팔곡병 虎鵠圖八曲屏 091  
 화조영모 花鳥翎毛 3폭 072  
 화조영모팔곡병 花鳥翎毛八曲屏·시고 詩稿 6폭 071  
 화조팔곡병 花鳥八曲屏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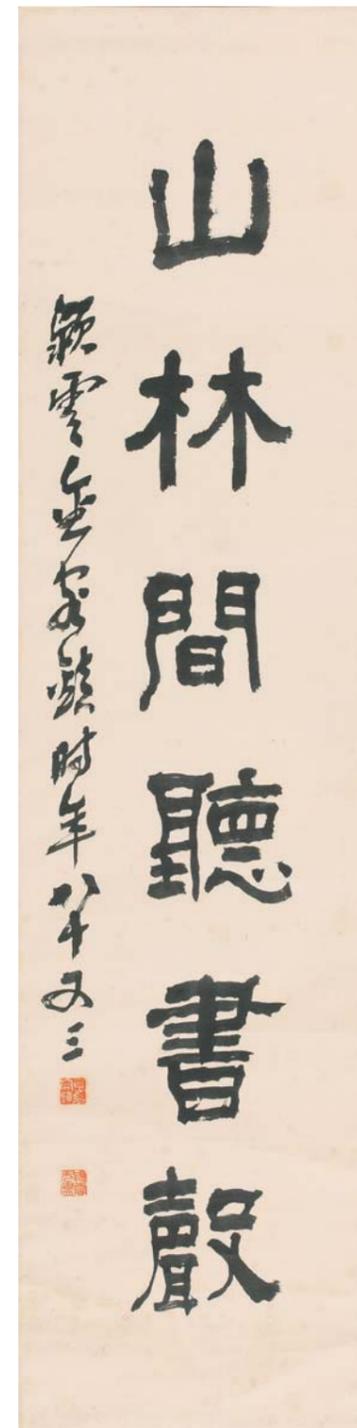
**첩·책 (작품명 가나다순)**

간독 簡牘 033  
 경상도 진상 물목 慶尙道 進上物目 043  
 김대중 金大中·김영삼 金泳三·김종필 金鐘泌 친필서명사진 126  
 대운산방문집 大雲山房文集 031  
 복초재문집 復初齋文集 029  
 봉주강감 鳳洲綱鑑 032  
 산회 汕繪·회소 繪素 : 화본첩 106  
 소학지남 小學指南 045  
 어정오경백편 御定五經百編·함 函 042  
 을묘사마방목 乙卯司馬榜目 044  
 정면규 鄭冕奎 과지 科紙 092  
 정휴탁 鄭休鐸 칩명 勅命 092  
 차지철 車智澈 사진·신분증·임명장 및 자료 일괄 127

**공예·도자 (작품명 가나다순)**

나주반단이 羅州櫃 134  
 담배합 煙草盒 135  
 백자청화모란문접시 白磁靑畫牡丹文碟匙 128  
 분청사기덤벙음각파초문호 粉靑沙器陰刻芭蕉文壺 129  
 운룡문단계연 雲龍文端溪硯 131  
 은제먹상 銀製墨床 136  
 정영원 太湖 鄭榮源 의복·신발 일괄 092  
 정휴탁 農山 鄭休鐸 호패 號牌 092  
 지승칠기원형반 紙繩漆器圓形盤 : 평양 송수당 133  
 칩임관 문관대례복 勅任官 文官大禮服 137  
 포도문위원연 葡萄文渭原硯 130





風雲中有詩思 山臨間聽書聲  
 바람과 구름 가운데에는 시사가 있고,  
 산과 숲 사이에서는 글 소리가 들리네.

001

구룡산인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鎮  
 안동安東, 성구聖九/ 1878-1968

풍운 風雲·산림 山林 대련  
 1960년  
 종이에 먹/ 족자  
 126.2x31.2cmx2

₩ 600,000-1,400,000

002

소전 손재형 素荃 孫在馨

밀양密陽, 영보明甫 / 1903-1981

매경한고발청향 梅經寒苦發清香

1961년(신축)

종이에 먹 / 가배접

33.2x209cm

₩ 1,500,000-3,500,000



梅經寒苦發清香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겪어야만  
맑은 향기를 풍긴다.

003

석운 권동수 石雲 權東壽

안동安東, 치영敦永 / 1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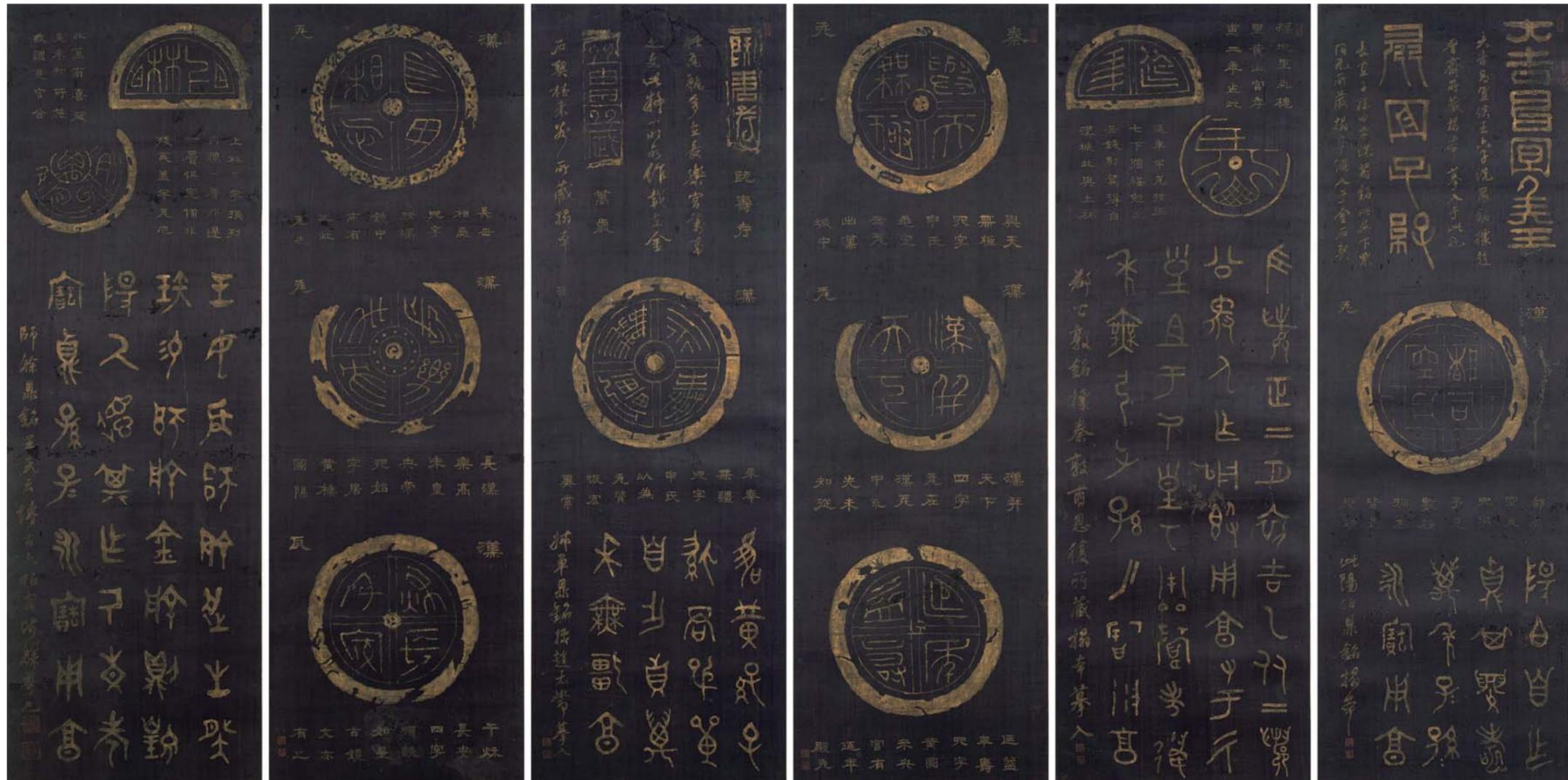
와당중정문육곡병

瓦當鐘鼎文六曲屏

비단에 금니/ 가벽풍

110.6x36.4cmx6

₩ 2,000,000-4,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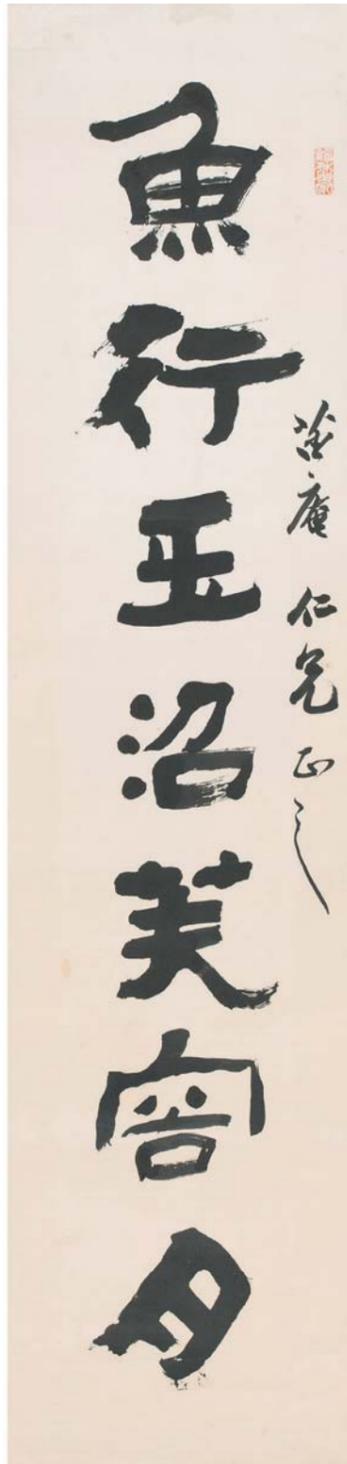


004

성당 김돈희 惺堂 金敦熙  
경주慶州, 공숙公叔 / 1871-1937

어행魚行·연출燕出 대련  
종이에 먹 / 가배집  
131x21.5cmx2

₩ 600,000-1,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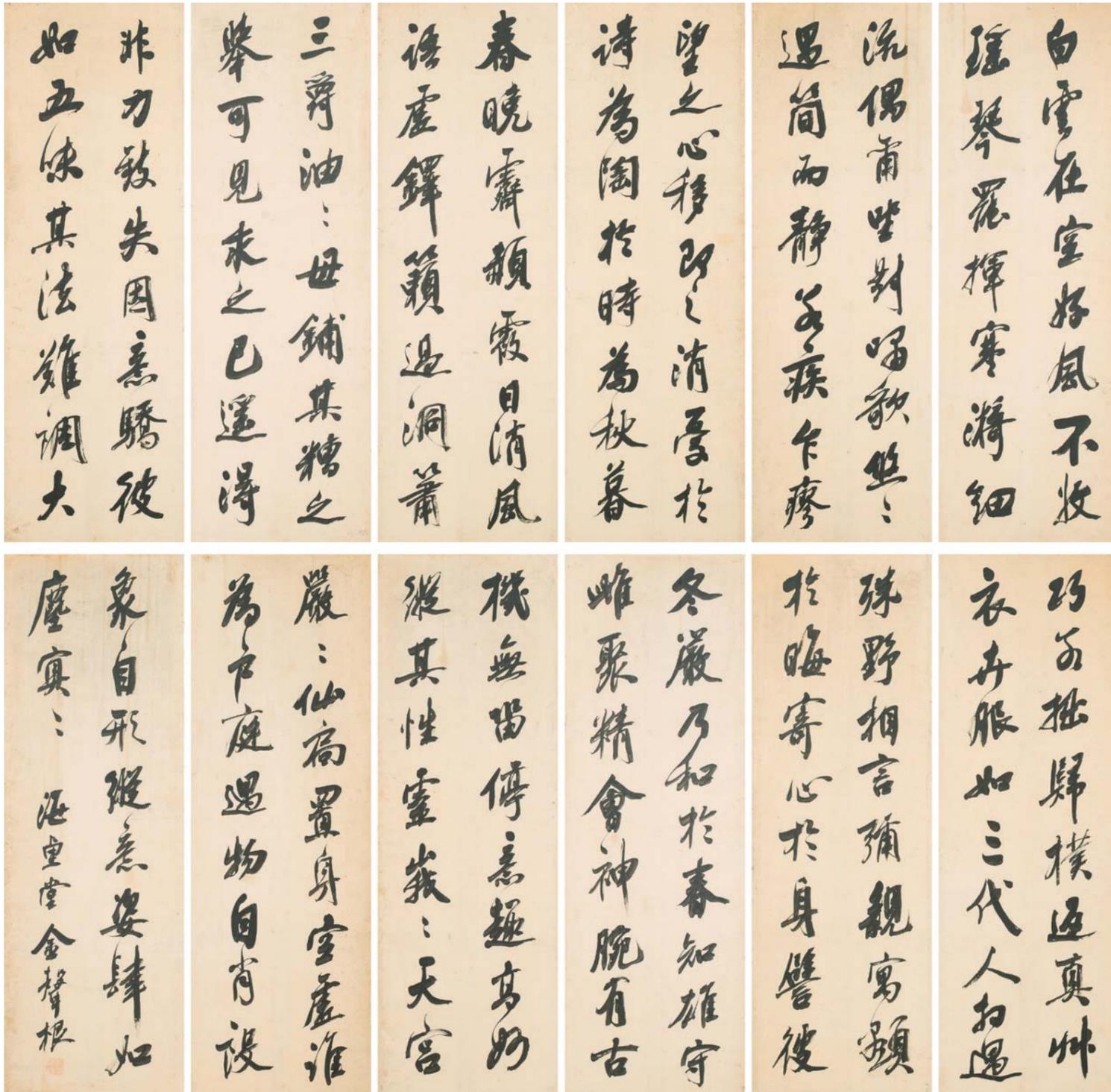


005

해사 김성근 海士 金聲根  
안동安東, 중원仲遠 / 1835-1918

시고십이곡병 詩稿十二曲屏  
종이에 먹 / 병풍  
102.5x34.5cmx12

₩ 1,500,000-3,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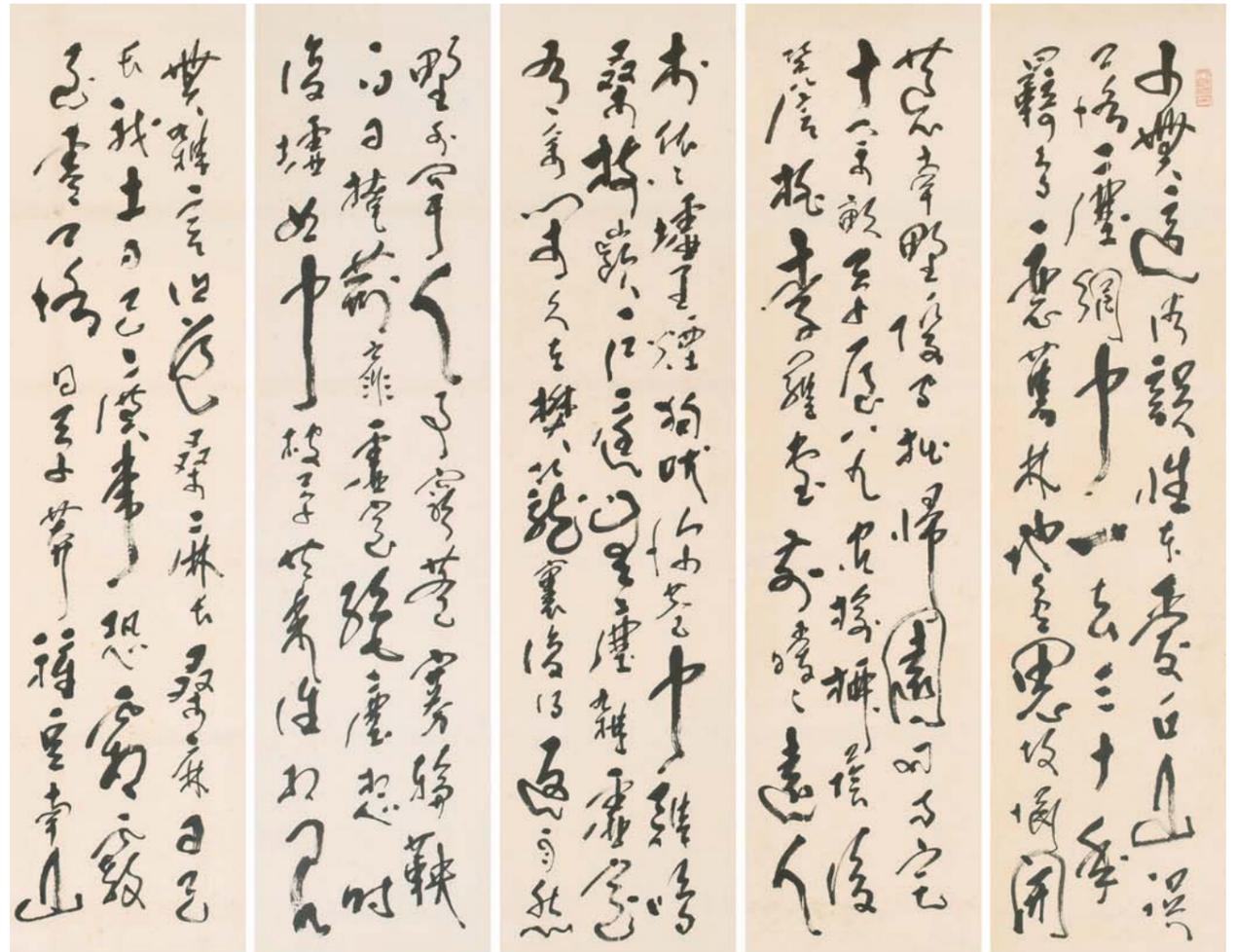


006

음화재 攄華齋

종이에 먹/ 가배접  
63x102.4cm

₩ 1,000,000-3,000,000



007

혜산 박두진 兮山 朴斗鎭

경주慶州/ 1916-1998

귀거래사십곡병 歸去來辭十曲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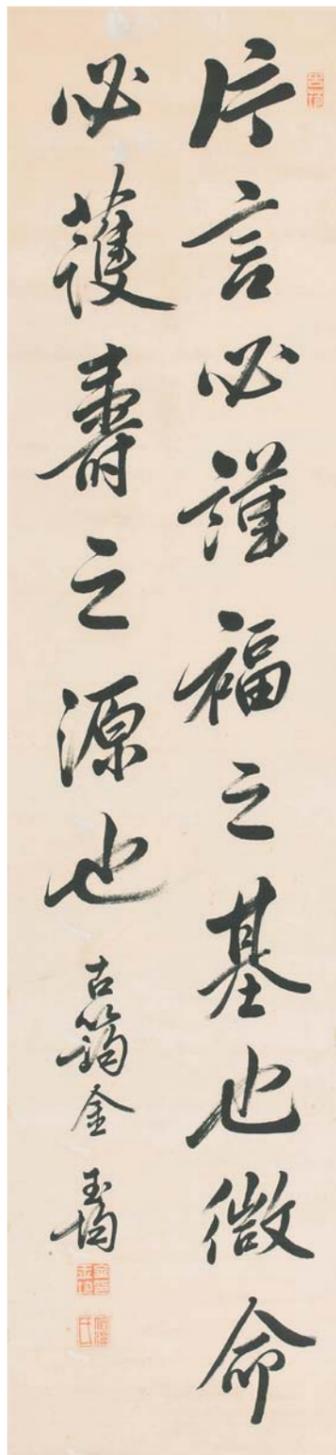
1993년(계유)

종이에 먹/ 병풍  
129.5 x 33cm x 10

₩ 1,500,000-3,500,000

片言必謹 福之基也  
 微命必護 壽之本也

한마디 말이라도 받드시 삼가면 복의 기초가 되며,  
 가늘목숨이라도 받드시 보호하면 장수의 근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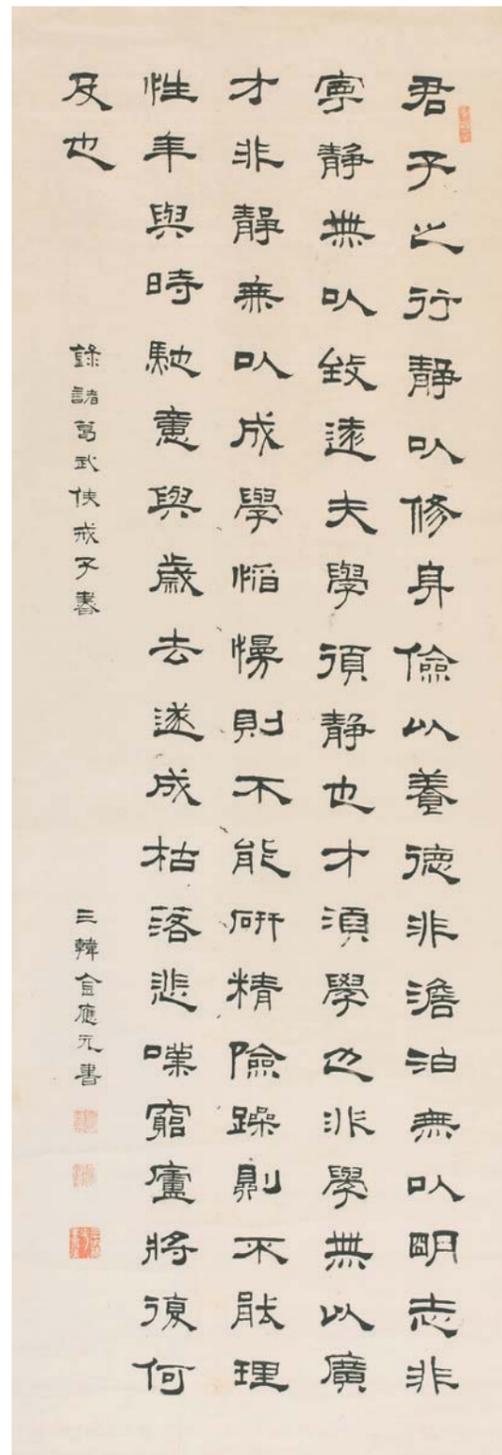


008

고균 김옥균 古筠 金玉均  
 안동安東, 백온伯溫/ 1851-1894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족자  
 131.4x30.3cm

₩ 1,200,000-2,800,000



009

소호 김응원 小湖 金應元  
 김해金海, 석범錫範/ 1855-1921

제갈무후계자서 諸葛武侯戒子書  
 종이에 먹/ 족자  
 171x60.5cm

₩ 600,000-1,400,000



010

성재 김태석 惺齋 金台錫  
 경주慶州/ 1875-1953

공제수역 共濟壽域:  
 이승만 李承晩(1875-1965) 박사께  
 1946년(병술)  
 종이에 먹/ 액자  
 33.3x133.3cm

₩ 1,000,000-2,500,000



011

몽인 정학교 夢人 丁學教  
나주羅州, 화경化境/ 1832-1914

진계 進溪  
종이에 먹/ 액자  
28x59.2cm

₩ 500,000-1,500,000



012

성재 김태석 惺齋 金台錫  
경주慶州 / 1875-1953

수덕행혜 樹德行惠  
1938년(무인)  
종이에 먹/ 가벽첩  
38x177cm

₩ 800,000-1,800,000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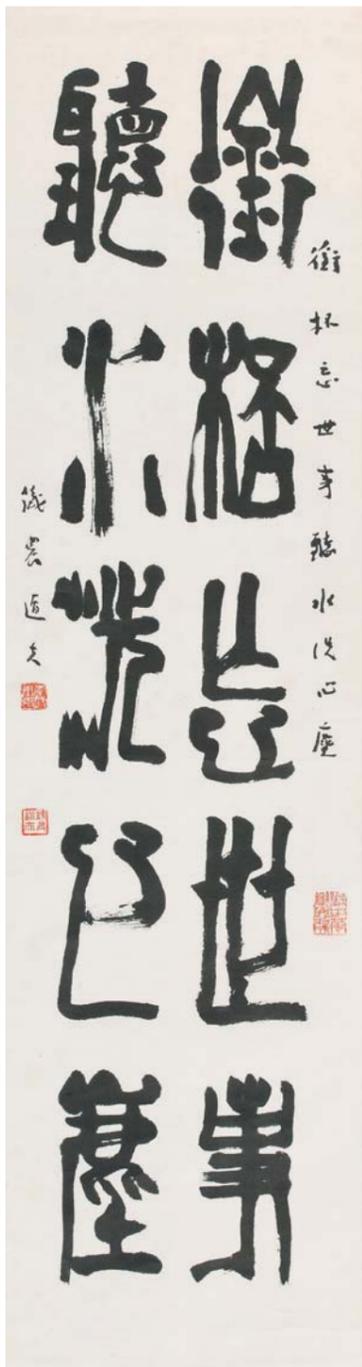
일중 김충현 一中 金忠顯  
안동安東, 서경恕卿/ 1921-2006

천자문십곡병 千字文十曲屏  
1981년(신유)  
종이에 먹/ 가벽풍  
134x34.5cmx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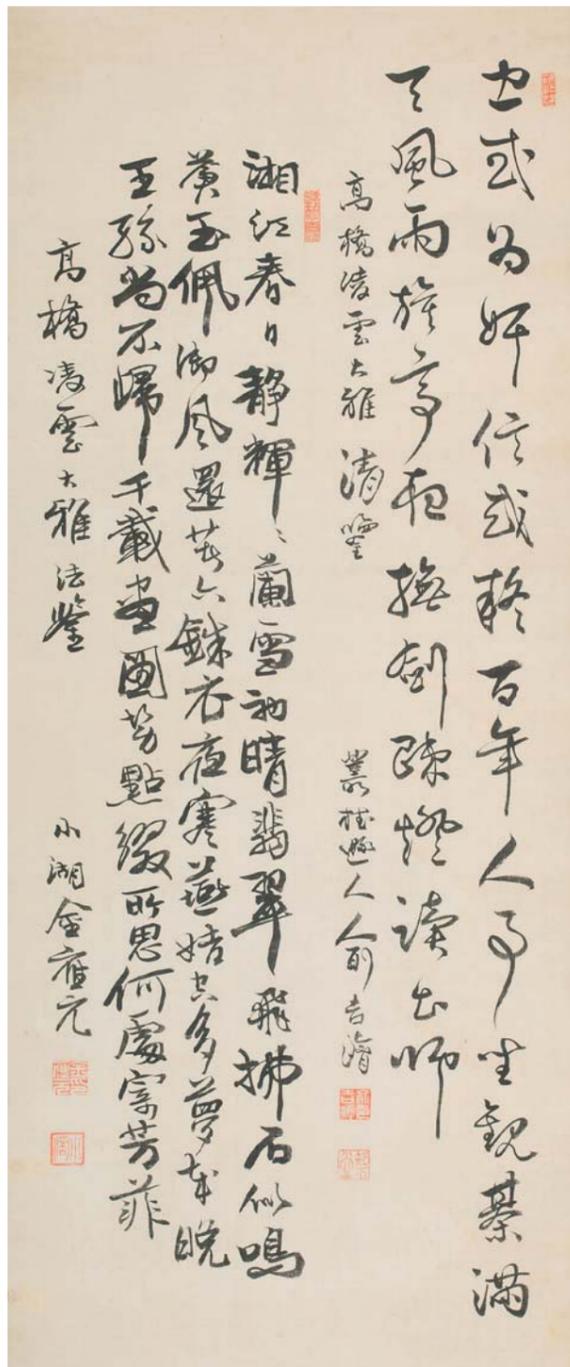
₩ 4,000,000-9,000,000

千字文  
天地玄黃宇宙洪荒日月盈昃宿列張寒來暑往秋收冬藏閏餘  
成歲律呂調陽雷騰致雨露結霜為金生麗水玉出崑岡劔璣巨關  
珠稱夜光果珍李柰棗重芥薑海鹹河淡鱗潛羽翔龍師火帝鳥官  
人皇始制文字乃服衣裳推位讓國有虞陶唐甲民伐罪周發既湯  
聖朝問道垂拱平章愛育黎首臣伏戎羌遐邇壹體率賓歸王鳴鳳  
在樹白駒食場化被草木賴及萬方蓋此身髮四大五常恭惟鞠養  
豈敢毀傷女慕貞烈男效才良知過必改得能莫忘罔談破短靡恃  
己長信使可覆器欲難量墨悲絲染詩讚羔羊景行維賢勉念位重  
德建名立形端表正空台傳聲壹堂習聰羈回惠積福緣善慶尺璧  
非寶寸陰是競資父事君曰嚴與敬孝當竭力忠則盡命臨深履薄  
夙興溫清佩簡斯馨如松之盛川流不息淵澄取暎宵止若思言辭  
安定篤初誠美慎終宜令恭業所基藉甚無竟學優登仕攝職從政  
考以甘棠去而益詠樂殊貴賤禮別尊卑上和和睦夫唱婦隨外受  
傳訓入奉母儀諸姑伯村猶予比兒孔懷兄弟同氣連枝交友投分  
切磨箴規仁趙隱惻遠次弗離節義廉退顛沛匪虧性靜情逸心動  
神疲守真志滿遂物意移堅持雅操好爵自縻都邑華夏東西二京  
背印面洛浮渭潁涇宮殿盤鬱樓觀飛鷲圖寫禽獸畫綵仙靈所舍  
傍唇甲帳對極肆筵設席鼓琴吹笙階階納陛弁轉疑星右通廣內  
左達承明既集墳典亦聚羣興杜萊鍾隸凍書群經府羅將相路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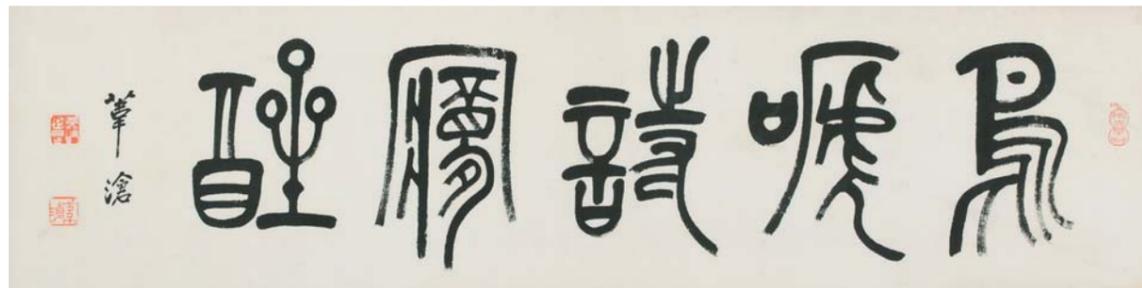
槐卿戶封八縣家給千兵高冠陪葦驅轂振鐸此稱侈富車駕肥輕  
策功茂實勒碑刻銘璫漢伊尹佐時阿衡奄宅曲阜徹旦執營桓公  
匡合濟弱扶傾綺回漢惠說感武丁俊入密勿多士寔寧晉楚更霸  
趙魏困橫假途滅珥踐土會盟何遵約法韓檠煩刑起箭頗牧用軍  
最精宣威沙漠馳譽丹青九州禹跡百郡秦并懋宋恒岳禪主云亭  
鷹門紫塞難田赤城昆池碣石鉅野洞庭曠遠隸巖岫杳冥治本  
於農務茲稼穡俶載南畝或藝黍稷稅熟貢新勸賞黜陟孟軻敦素  
史魚秉直庶幾中庸勞謙謹勅聆音察理鑑穎辨色貽厥嘉猷勉其  
祖德省躬誠寵增抗極殆辱近恥林卑率即兩疏見機解組誰逼  
索居閑氣沈默宋察求古尋論歡愆道遠欣素寔遺感謝歡招渠荷  
的庶園芥抽條批把晚翠梧桐早彫陳根委翳落葉飄颻遊鶻獨運  
凌摩絳霄耽讀說市寓目囊箱易韜收畏屬耳垣牆具膳滄飯適口  
充勝飽飫烹宰飢厭糟糠親戚故舊老少異糧妾御績紡侍巾帷房  
歛扇圓潔銀燭煒煌重暉夕寐藍荀象床結歌酒讌接杯舉觴搗手  
頓足悅豫且廉媼後嗣續祭祀蒸嘗稽顙再拜悚懼恐惶熒熒簡要  
顧答雷詳歎垢想浴執熱願涼驢驘犢特駭躍超驥誅斬賊盜捕獲  
牧止布射道九秘琴阮嘯恬筆倫紙鈞巧任鈞釋紛利倍並皆佳妙  
毛施淑姿工嘽妍笑丰采每催羨暉朗曜瓊瓊懸幹皎皎照指新  
脩祐承綬吉部矩步引領俯仰靡廟束帶矜莊徘徊瞻眺孤陋寡聞  
愚蒙等誦謂語也者寫哉乎也 辛酉孟春金忠顯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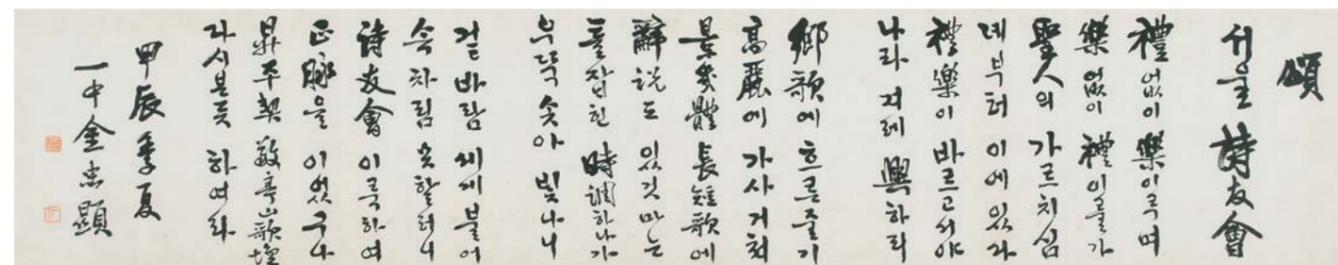
**014**  
**철농 이기우 鐵農 李基雨**  
 전주全州, 태십육년/ 1921-1993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족자  
 122.4x32.2cm  
 ₩ 300,000-700,000



**015**  
**구당 유길준 矩堂 兪吉濬**  
 기계杞溪, 성무聖武/ 1856-1914  
**소호 김응원 小湖 金應元**  
 김해金海, 석범錫範/ 1855-1921  
 시고 詩稿  
 비단에 먹/ 족자  
 111.5x46.7cm  
 ₩ 800,000-2,000,000



**016**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해주海州, 중명仲銘/ 1864-1953  
**조명시몽성 鳥鳴詩夢醒**  
 종이에 먹/ 액자  
 26.5x108cm  
 ₩ 700,000-1,500,000



**017**  
**일중 김충현 一中 金忠顯**  
 안동安東, 서경연년/ 1921-2006  
**송 頌 : 서울 시우회 詩友會에**  
 1964년(갑진)  
 종이에 먹/ 액자  
 21x108.5cm  
 ₩ 600,000-1,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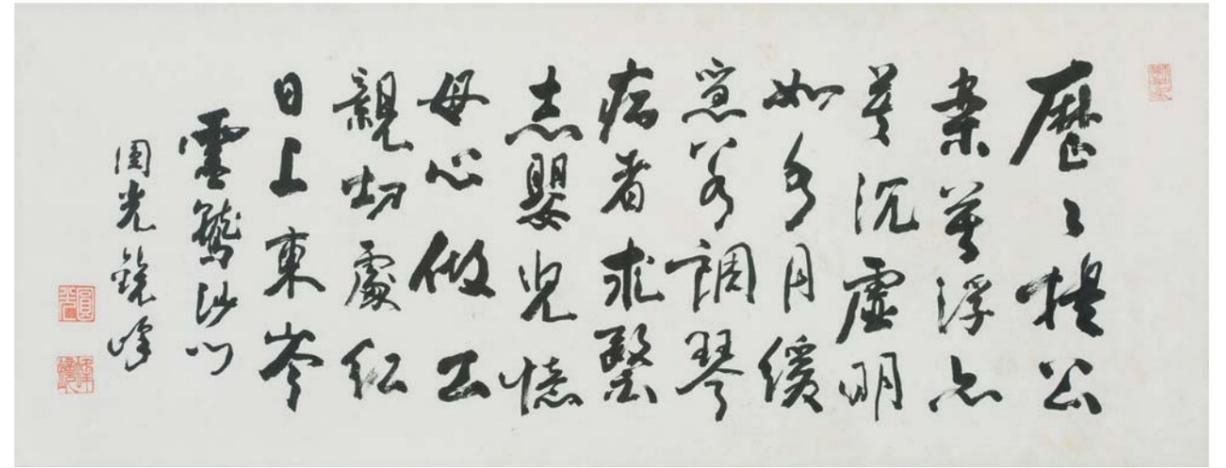


018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鎭  
남평南平, 용삼容三/ 1868-1933

금강산비로봉시 金剛山毘盧峯詩  
종이에 먹/ 족자  
135.8x32.5cm

₩ 800,000-2,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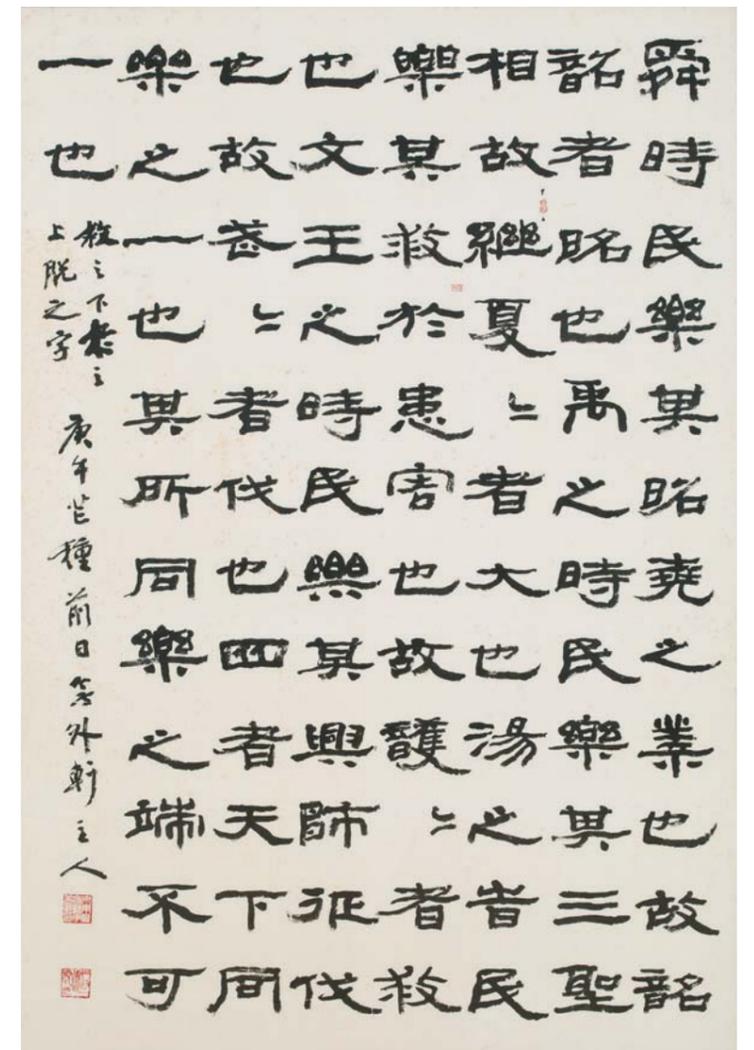


019

경봉 정석 鏡峰 靖錫  
광주光州/ 1892-1982

게송 偈頌  
종이에 먹/ 액자  
32x83.5cm

₩ 800,000-1,800,000



020

여초 김응현 如初 金膺顯  
안동安東, 선경善卿/ 1927-2007

순시민락 舜詩民樂  
1990년(경오)  
종이에 먹/ 액자  
140x94.5cm

₩ 1,000,000-2,500,000



022  
 석운 권동수 石雲 權東壽  
 안동安東, 치영치영/ 1842-?  
 미로득한 未老得閒  
 비단에 먹/ 가배접  
 38x123.5cm  
 ₩ 600,000-1,400,000



023  
 유산 민경갑 西山 閔庚甲  
 여흥驪興/ 1933-2018  
 선신수호부 善神守護符  
 1997년(정축)  
 종이에 담채/ 액자  
 41x10.5cm  
 ₩ 400,000-1,000,000

021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해주海州, 중명중銘/ 1864-1953  
 종정과당문십곡병 鐘鼎瓦當文十曲屏  
 종이에 먹/ 병풍  
 126x32.7cmx10  
 ₩ 6,000,000-13,000,000



024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경주慶州, 원춘元春/ 1786-1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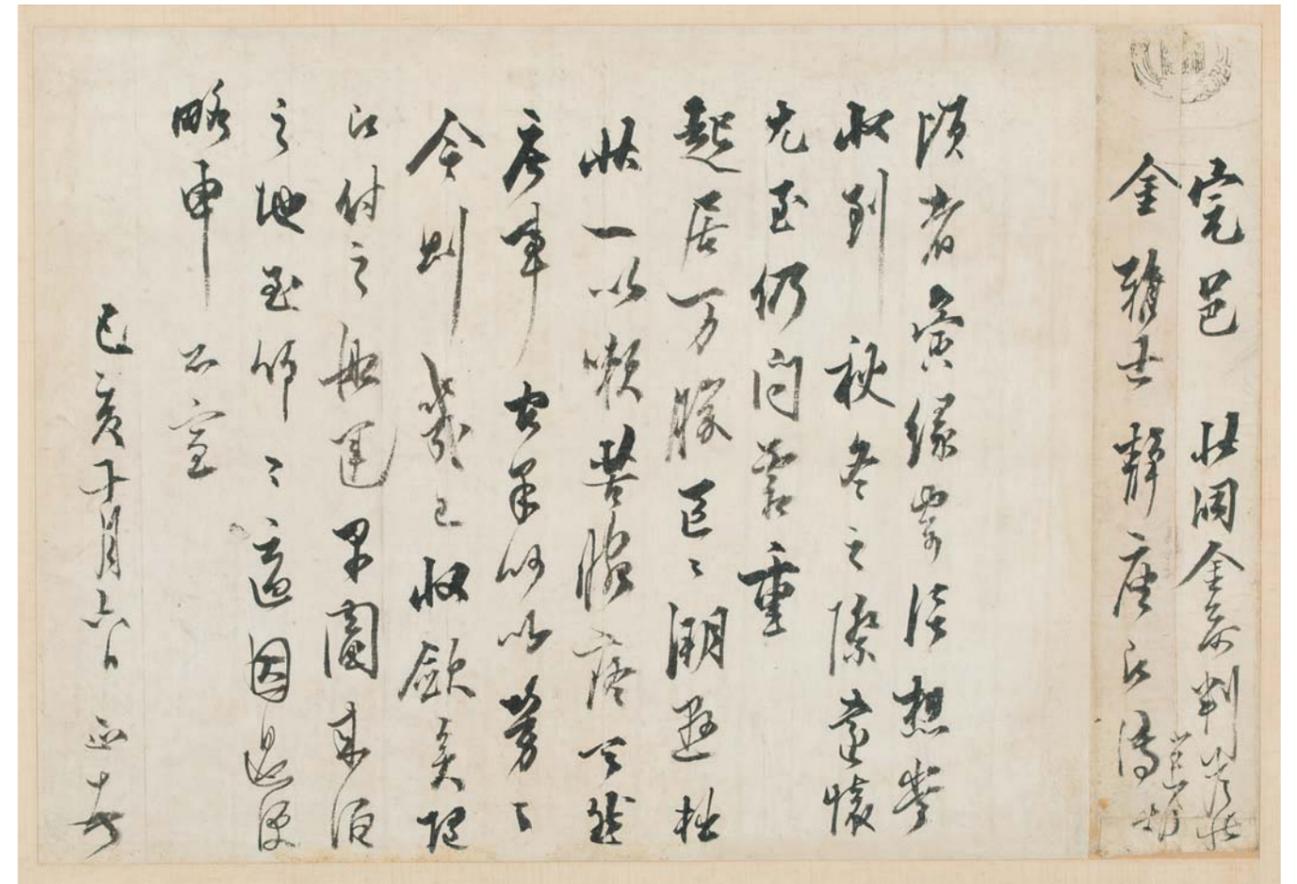
소재 蘇齋  
종이에 먹/ 액자  
19x57cm

₩ 7,000,000-15,000,000

蘇齋昉於宋之張聖塗 其後王麓臺作圖何義門書扁為二為三 覃溪老人為第四稱耳

소재蘇齋라는 당호는 처음 송나라의 장성도張聖塗(장천기張天驥)에게서 시작하고, 그 뒤에 왕록대王麓臺(왕원기王原祁)가 그림을 그리고 하의문何義門(하작何焯)이 편액을 써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 담계노인覃溪老人은 네 번째로 소재를 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측 양진니友竹 楊鎭尼(1928-2018) 배관



025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경주慶州, 원춘元春/ 1786-1856

서간 書簡  
1839년(기해)  
종이에 먹/ 액자  
32x47.3cm

₩ 7,000,000-15,000,000

026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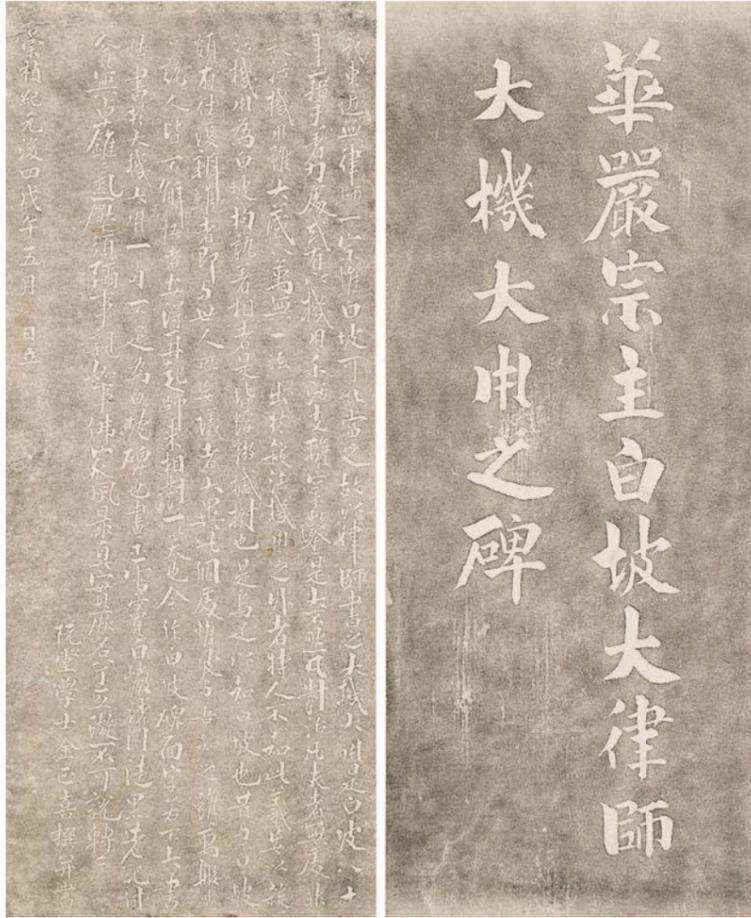
경주慶州, 원춘元春/ 1786-1856

백파대을사비 白坡大律師碑

탁본 전후면 前後面

종이에 탁본/ 가리개  
126x50.7cmx2

₩ 700,000-1,400,000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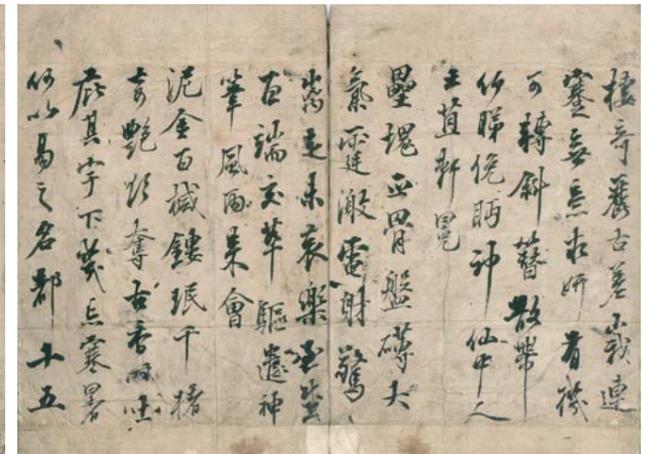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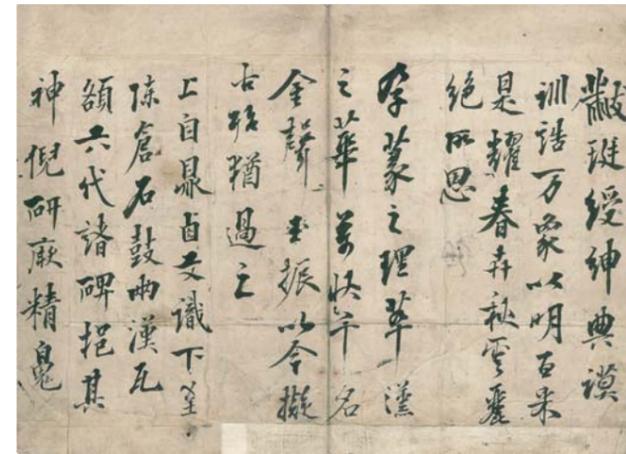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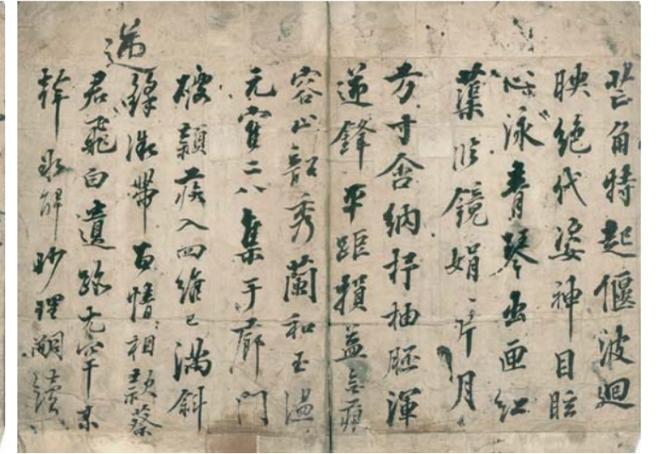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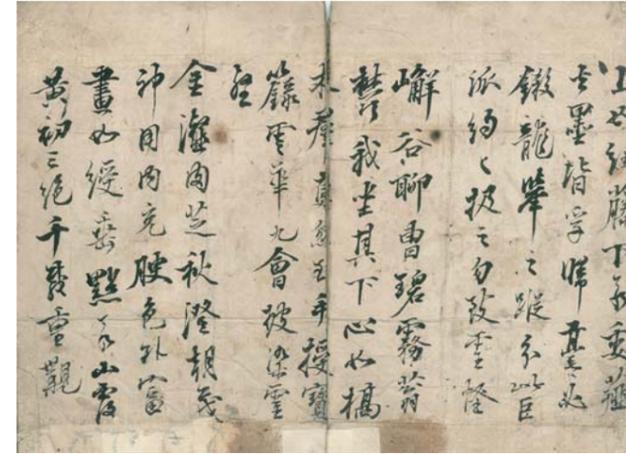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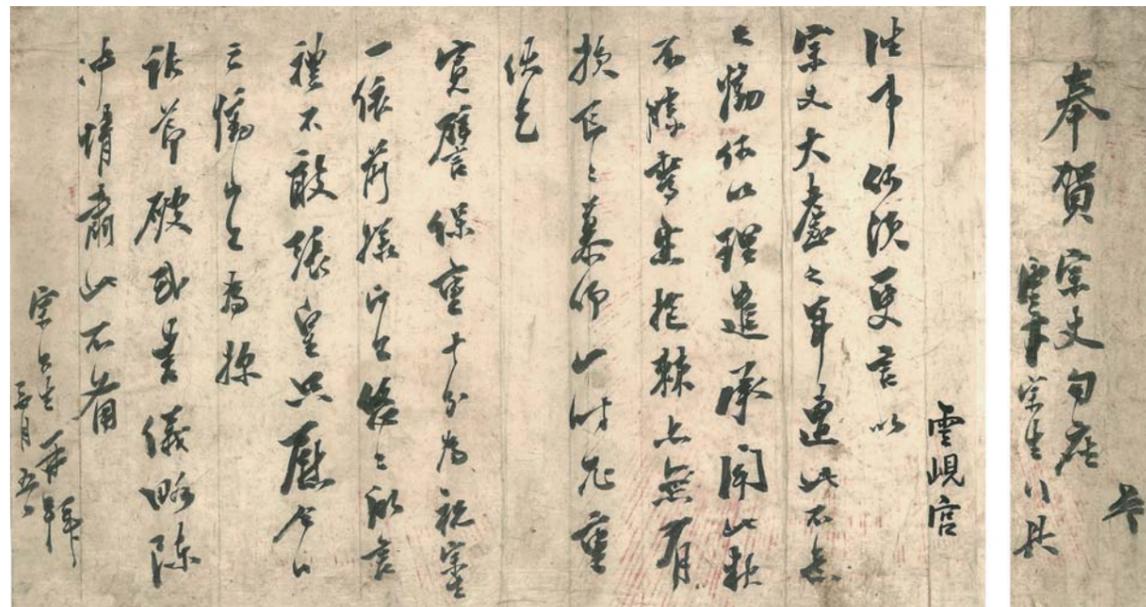
석파 이하응 石坡 李昞應

전주全州, 시백時伯/ 1820-1898

서간 書簡

종이에 먹/ 가베집  
24x45.2cm

₩ 500,000-1,200,000



028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경주慶州, 원춘元春/ 1786-1856

완당보묵 阮堂寶墨

종이에 먹/ 첩  
29x20.2cm(8면)

₩ 3,000,000-7,000,000



# 030

유산 정학연 西山 丁學淵

나주羅州, 치수稱修/ 1783-1859

육완당 이풍익 六玩堂 李豊翼

연안延安, 자곡子毅/ 1804-1887

사영 김병기 思穎 金炳冀

안동安東, 성존聖存/ 1818-1875

영어 김병국 穎漁 金炳國

안동安東, 경용景用/ 1825-1905

승산 김영근 勝山 金泳根

안동安東, 덕부德夫/ 1893-1873

심경택 沈敬澤

청송靑松, 자여子與/ 1805-?

심응태 沈膺泰

청송靑松, 원림元林/ 1803-?

조원석 趙元錫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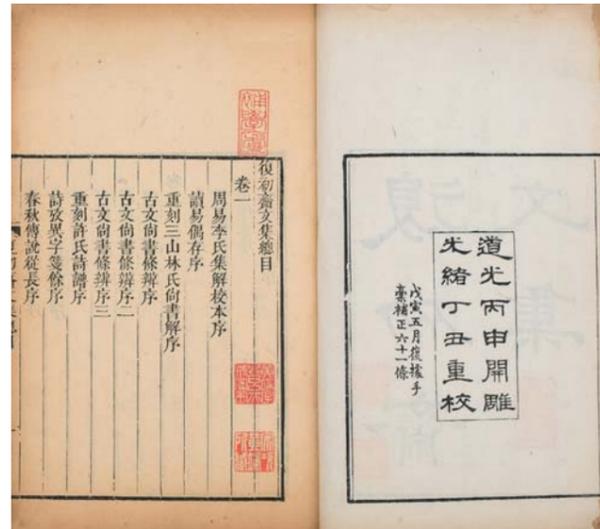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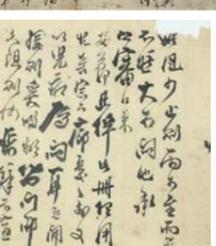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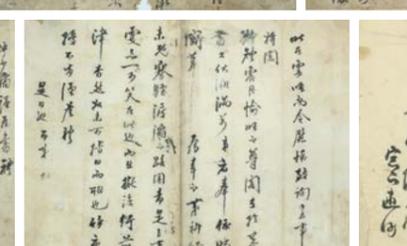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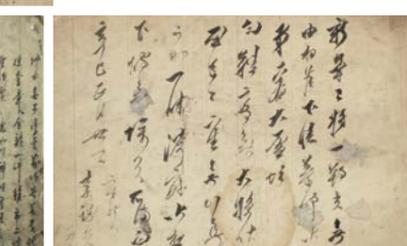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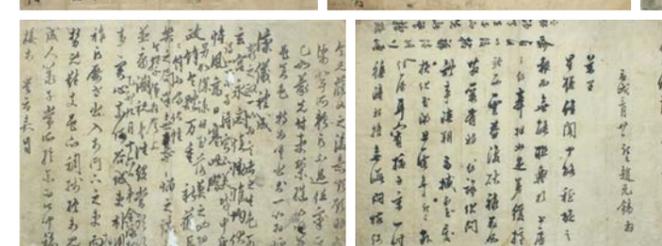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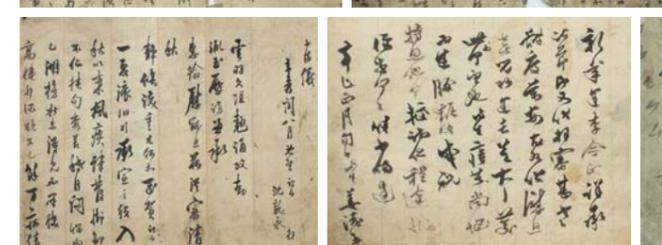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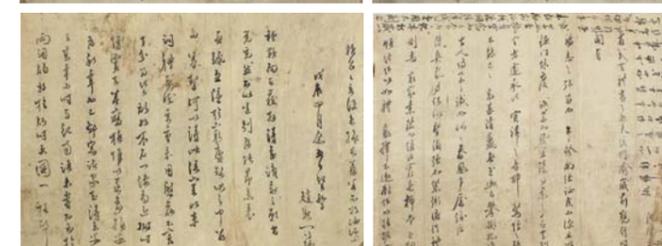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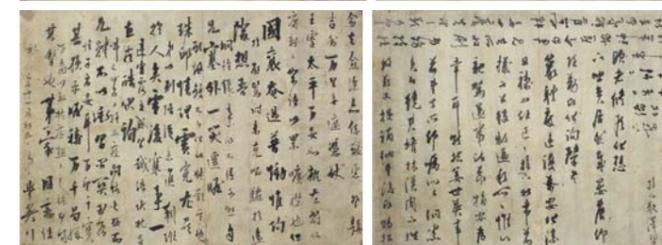
평양平壤, 거경樂興/ 1797-?

서간 書簡 19점 일괄

종이에 먹/ 가배접

31.6x43cm 외

₩ 2,000,000-4,500,000



# 029

복초재문집 復初齋文集

책  
25x15.6cm

₩ 3,500,000-7,000,000

『복초재문집』은 청나라 학자 옹방강翁方綱(1733-1818)의 문집이다. 경학의리經學義理, 문헌고증文獻考證, 금석金石, 서화書畫, 문장文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옹방강의 학문적 견해가 집중적으로 담긴 책으로 편지와 서문 등을 포함하고 있어 옹방강의 학술활동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에 출판된 『복초재문집』은道光道光26(1836)년에 섭지선葉志詒(1779-1862)이 간행한 판본을 광서光緒 정축(1877)년에 중각重刻한 판본으로 옹방강 사후에 후학들이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총 35권 12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 031

#### 대운산방문집 大雲山房文集

책: 포갑  
24x15.3cm

₩ 2,000,000-4,000,000



청나라 문인 윤경(1757-1817)의 문집이다. 윤경은 양호파(陽湖派)라는 산문 유파의 창시자로 문장이 간결하고 근엄하며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의 기풍이 있다는 평을 들었던 인물이다. 건륭(乾隆) 48(1783)년 거인(舉人)이 된 후 부양지현(富陽知縣), 평음지현(平陰知縣), 신유지현(新喻知縣) 등을 지냈는데 성격이 울곧아 상관과 자주 충돌하다 결국 집안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당했다.

『대운산방문고』는 최초로 가경 16년(1811) 경사(京師) (북경) 유리창(琉璃廠)에서 제작했고 같은 해 9월에 상주(常州)에서 중각(重刻)하여 고쳤다. 약 4년 뒤인 가경 20(1815)년에는 윤경이 가족의 뇌물 사건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1811년 간행했던 초본의 원고를 본격적으로 삭제, 수정, 보강하여 남창(南昌)의 갑술방(甲戌坊)에서 새롭게 출간했다. 출판작은 1815년에 간행된 판본이다.

대운산방문고는 청나라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비들 또한 보고 싶어했던 책이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발문에서도 우선 이상적(蘆船 李尙迪 1804-1865)이 제주에서 유배중인 김정희에게 『만학집(晩學集)』과 『대운산방문고』를 부쳐주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 032

#### 봉주강감 鳳洲綱鑑 : 급류정 김흥경 急流亭 金興慶(1677-1750) 구장본

책  
25.8x16.3cm

₩ 15,000,000-30,000,000



『봉주강감』은 왕세정(王世貞 1526-1590)이 저술한 『역조강감회찬(歷朝綱鑑會纂)』으로 『역조강감(歷朝綱鑑)』이나 왕세정의 호인 봉주(鳳洲)를 붙여서 『봉주강감』으로도 불렸다. 명나라의 관언박(郭彥博)이 찬집한 『속봉주강감(續鳳洲綱鑑)』과 청나라의 주린(朱珔)이 쓴 『명기집략(明紀輯略)』 모두 책의 내용이 비슷하거나 서로 참고한 것으로 기록에도 책들의 판본이 뒤섞여 있어 명칭이 혼칭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조47(1771)년에 청나라 주린의 『명기집략(明紀輯略)』에 조선 왕실의 계보를 무함(誣陷)하는 불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이 때 주린이 쓴 『명기집략』과 주린의 문집 『청암집(靑庵集)』을 비롯하여 주린이 참고한 왕세정의 『봉주강감』 등의 책이 문제의 대상이 되었다. 영조는 크게 분노하며 '강감'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책은 모두 불태우도록 명령했고 책을 구입하여 소장하던 사람과 책을 거래하던 책패(冊僮)를 처벌했다.

특히 주린의 『명기집략』은 조선 지식인 사이에서 일찍부터 불온서적으로 취급받았는데, 북경을 방문한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 이 책을 접한 뒤 내용의 부당함을 청나라의 반정군(潘廷筠)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영조33년(1757)에 이미 청나라에서 책의 판본과 간행본을 모두 수거하여 없애버렸다. 하지만 이미 이보다 훨씬 전부터 『명기집략』과 『봉주강감』 등이 조선에 유통된 뒤였고 많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 책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조47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해당 책들은 자진해서 반납되거나 불태워져 현재까지 중국과 우리나라를 통틀어 거의 없다. 이때 수거된 책의 종류는 10여 종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출품작은 영조대에 삼사의 청요직을 지낸 인물이자 추사 김정희의 고조부인 급류정 김흥경(急流亭 金興慶 1677-1750)이 소장했던 명나라 승정(崇禎)연간 간행본 『속봉주강감』으로 표지에는 『봉주강감』이라고 되어있다. 영조 때의 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책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요직을 지냈던 인물이자 영조의 사돈이었던 김흥경이 소장했던 책이며 상태가 온전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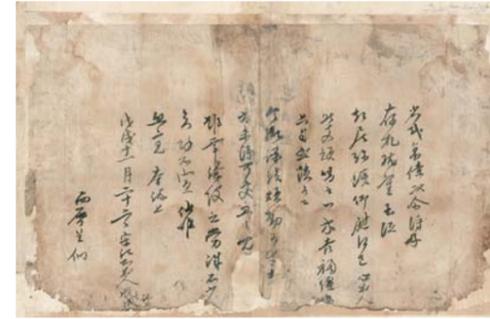
간독 簡牘

종이에 먹/ 첩  
37x23.5cm 외(2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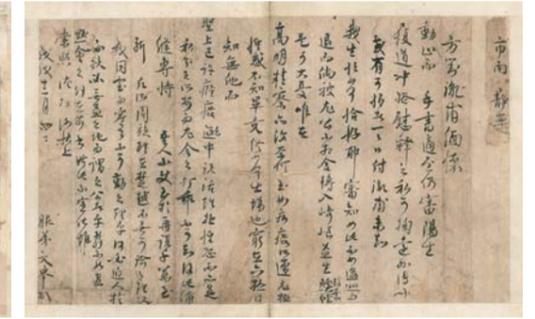
₩ 7,000,000-15,000,000

출품작은 조선후기 인물 19명의 간찰 21권을 총 33면에 걸쳐 모아놓은 첩이다. 김수항,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계 학자들의 간찰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윤순거, 윤문거, 윤선거 삼형제의 간찰과 윤선거의 아들이자 소론의 대표적 인물인 윤증의 간찰, 남인에 속하는 이현일, 이재의 간찰이 함께 실려 있다.

1. 남파 심열 南坡 沈悅, 1569-1646
2. 남파 심열 南坡 沈悅, 1569-1646
3. 문곡 김수항 文谷 金壽恒, 1629-1689
4. 문곡 김수항 文谷 金壽恒, 1629-1689
5. 도암 이재 陶庵 李穡, 1680-1746
6. 우암 송시열 尤庵 宋時烈, 1607-1689
7. 갈암 이현일 葛庵 李玄逸, 1627-1704
8. 우암 송시열 尤庵 宋時烈, 1607-1689
9. 밀암 이재 密菴 李穡, 1657-1730
10. 동춘당 송준길 同春堂 宋浚吉, 1606-1672
11. 귀락당 이만성 歸樂堂 李晩成, 1659-1722
12. 석호 윤문거 石湖 尹文舉, 1606-1672
13. 이구 李穡, 18세기
14. 동토 윤순거 童土 尹舜舉, 1596-1668
15. 임여재 유구 臨汝齋 柳 奎, 1730-1806
16. 미촌 윤선거 美村 尹宣舉, 1610-1669
17. 지족암 오겸 知足庵 吳謙, 1496-1582
18. 명재 윤증 明齋 尹拯, 1629-1714
19. 문암 이의철 文宜 哲文菴, 1703-1778
20. 퇴우당 김수흥 退憂堂 金壽興, 1626-1690
21. 도곡 이의현 李宜 顯陶谷, 1669-174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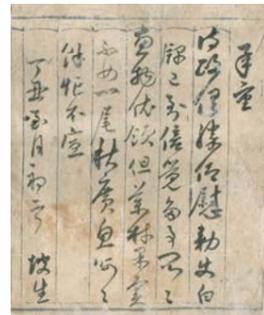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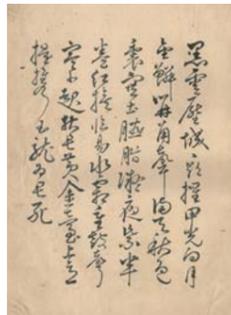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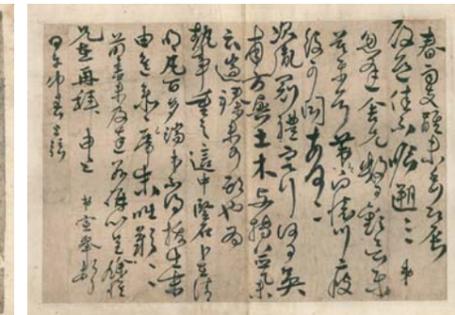
3



4



15



16



5



6



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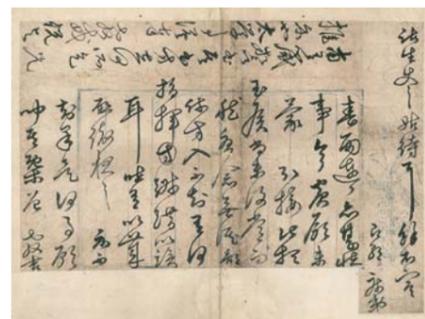
18



8



9



10



19



20



21

# 034

원교 이광사 圓嶠 李匡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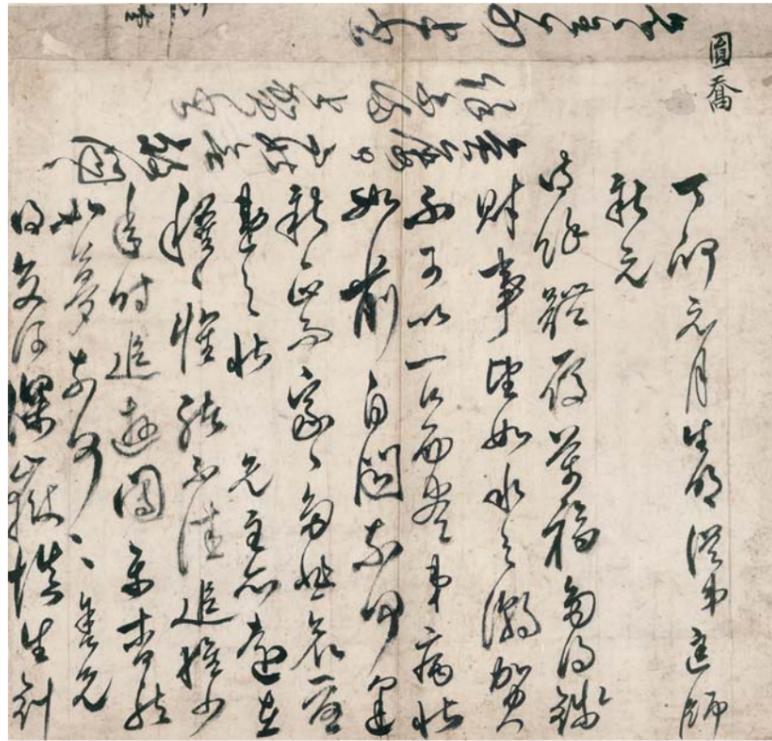
전주全州, 도보道甫 / 1705-1777

서간 書簡

1747년(정묘)  
종이에 먹 / 가배접  
30x31cm

₩ 2,000,000-4,000,000

이광사가 사촌 형님께 새해 인사를 올리며 쓴 편지로, 새해가 되었으나 집집마다 슬픔과 질병이 만연한 상황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035

원교 이광사 圓嶠 李匡師

전주全州, 도보道甫 / 1705-1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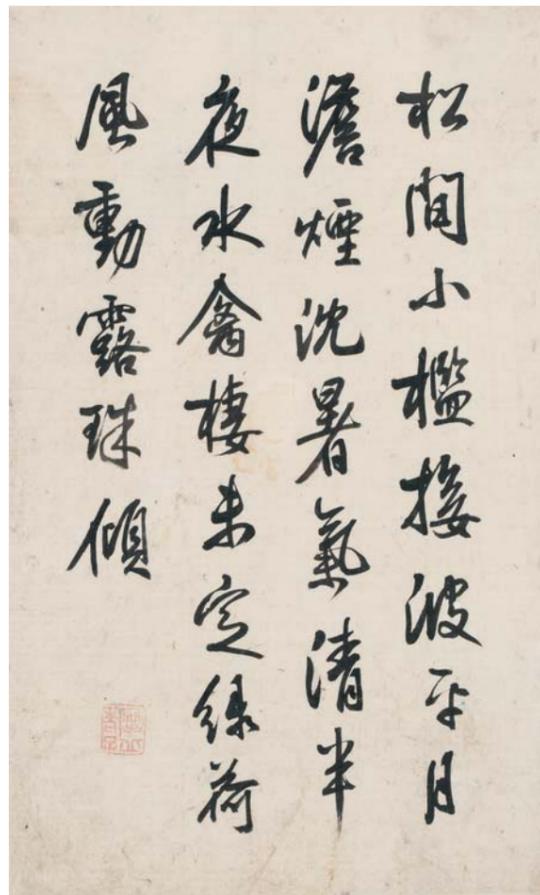
양사 涼思 : 오웅 吳融 시

종이에 먹 / 액자  
24.4x14.5cm

₩ 1,000,000-2,500,000

松間小檻接波平 月澹煙沈暑氣清  
半夜水禽樓未定 綠荷風動露珠傾

소나무 사이 작은 난간에 잔잔한 물결 접하고, 달빛 담박하고 연기 가라앉아 더운 기운도 맑네. 깊은 밤인데 물새들은 잠자리 정하지 못하였는가, 푸른 연꽃 바람에 움직이니 이슬방울 구르네.



# 036

신재 이영익 信齋 李令翊

전주全州, 유공幼公 / 1740-미상

양주첩 漾舟帖

종이에 먹 / 첩  
29x20cm(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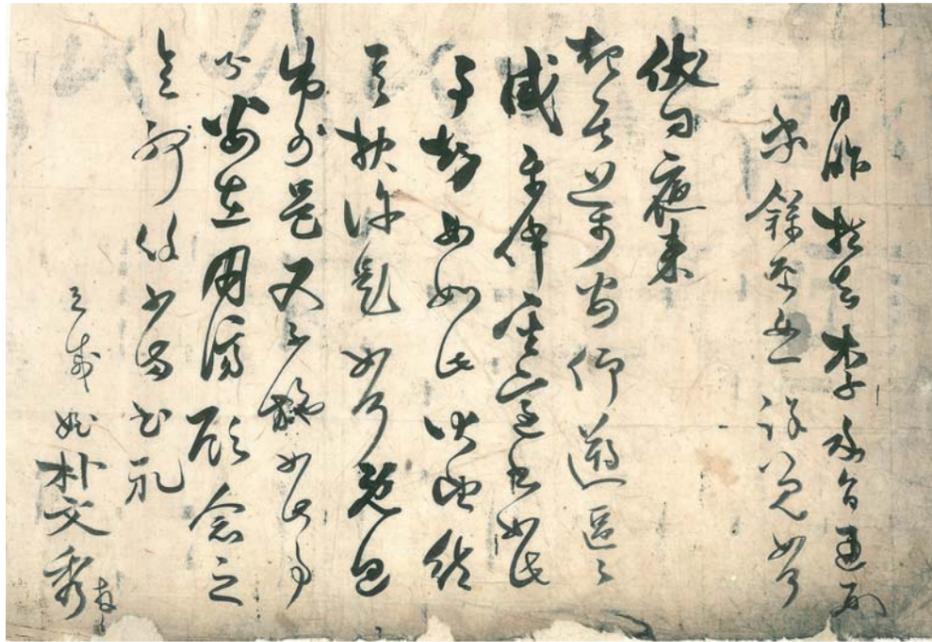
₩ 5,000,000-12,000,000

이영익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학자이자 서예가로 조부는 각리 이진검角里 李真儉, 부친은 원교 이광사 圓嶠 李匡師, 형은 『연려실기술』의 저자 이공익李肯翊이다.

출품작은 이공익의 서첩으로 표지에 '양주첩漾舟帖'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당나라 두보杜甫의 시 「숙청계역봉회장원의십오형지서宿靑溪驛奉懷張員外十五兄之緒」의 앞 두 글자 '漾舟'를 따 제목을 취하였다.

그 뒤로는 두보의 「황하黃河」 2수 가운데 일부를 실었고 당나라 조영祖詠의 오언절구 「기왕장사壽王長史」, 한유韓愈의 오언절구, 「유항柳巷」, 배적裴迪의 오언절구인 「녹채鹿柴」, 두보의 칠언율시인 「사제관부람전취처자도강릉舍弟觀赴藍田取妻子到江陵」, 당나라 양응楊凝의 오언절구 「영우詠雨」를 차례로 썼다. 유려한 필체와 바탕의 그림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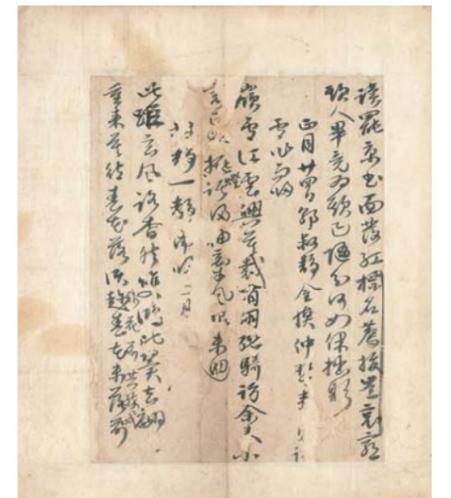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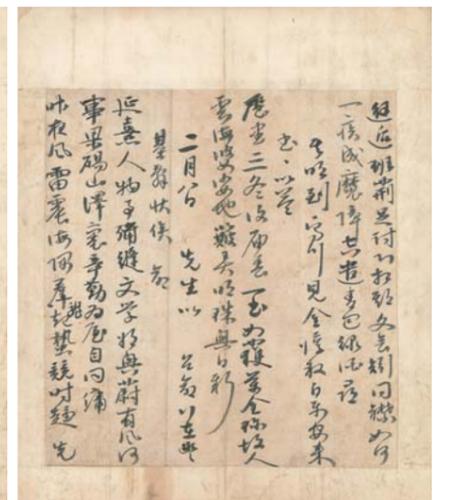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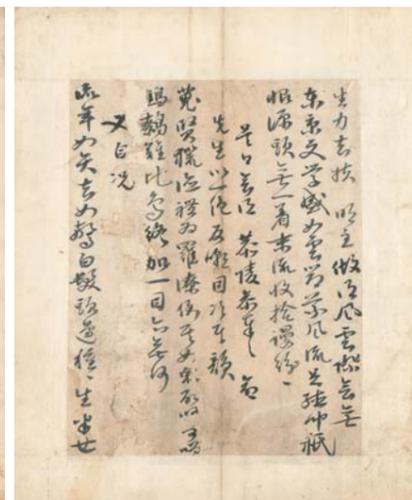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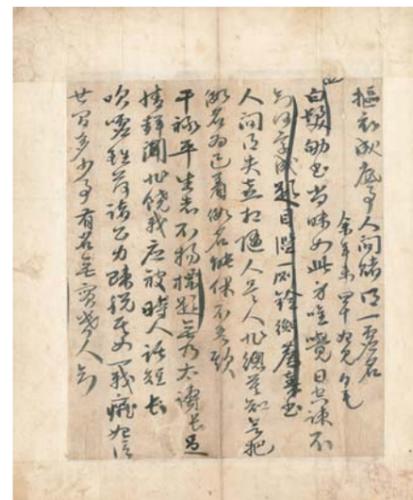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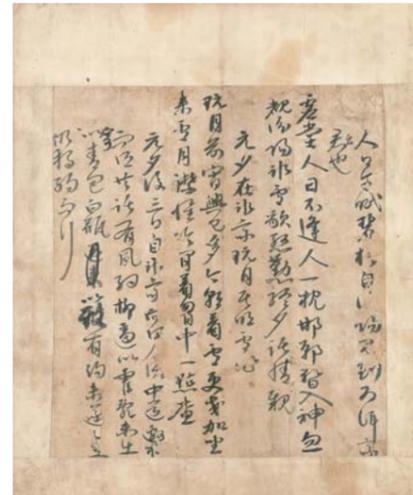
037

기은 박문수 耆隱 朴文秀  
고령高靈, 성보成甫 / 1691-1756

서간 書簡  
종이에 먹/ 가배접  
23.3x33.3cm

₩ 1,000,000-2,500,000

함평군수의 보고를 받고 나서 해당 결재를 바란다는 공문 성격의 글과 가지고 간 이승지 집안의 자료를 살펴보고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간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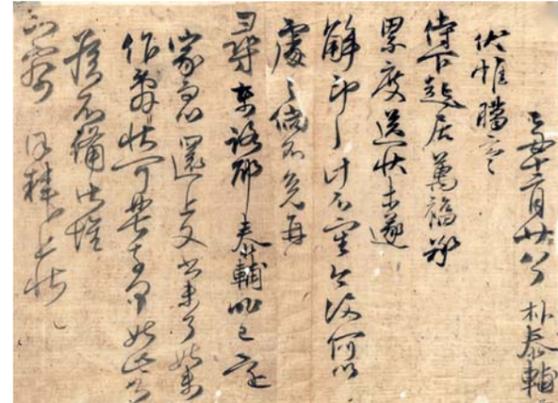


038

서계 박세당 西溪 朴世堂  
반남潘南, 계공季肯 / 1629-1703  
정재 박태보 定齋 朴泰輔  
반남潘南, 사원士元 / 1654-1689

서간 書簡  
1695년(을해), 1685년(을축)  
종이에 먹/ 가배접  
27.2x45.8cm, 20.9x28.5cm

₩ 1,000,000-2,000,000



039

퇴계 이황 退溪 李滉  
진보眞寶, 경호景浩 / 1501-1570  
월천 조목 月川 趙穆  
황성橫城, 사경士敬 / 1524-1606

양현유묵 兩賢遺墨  
종이에 먹/ 접  
33x14cm(14면)

₩ 5,000,000-12,000,000

# 040

## 숙종대왕 肅宗大王

전주全州, 명보明普 / 1661-1720

### 시고 詩稿 2점

1704년(갑신)  
종이에 먹/액자  
29.7x44.4cm, 24.3x52.3cm

₩ 50,000,000-1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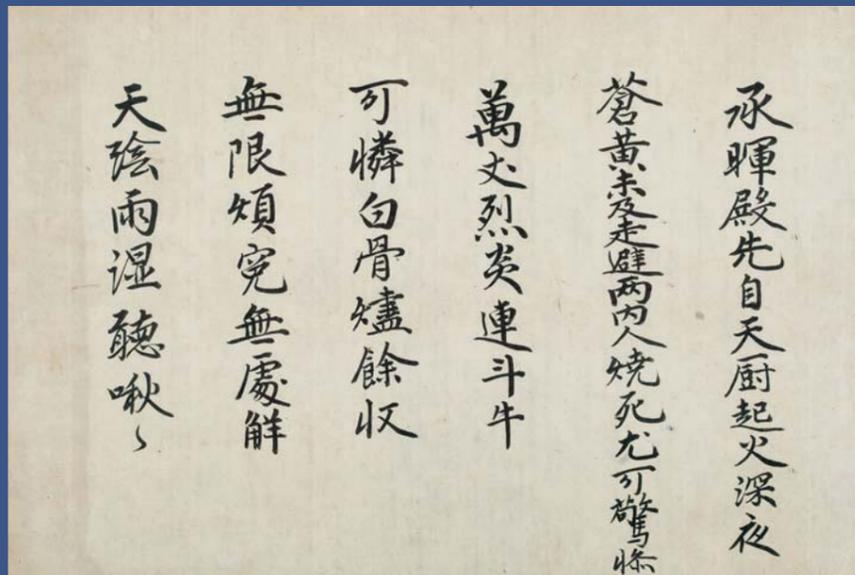
출품작은 새로 발굴된 숙종대왕의 글씨 두 점이다.

숙종肅宗(1661-1720)은 조선의 제19대 국왕으로 1675년에서 1720년까지 46년간 장기간 재위하였다. 숙종은 경덕궁敬德宮(경희궁慶熙宮) 회상전會祥殿에서 태어났다. 1667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3세의 어린 나이에 부왕 현종이 급서하면서 즉위한다. 1674년 음력 8월에 13살의 어린 나이로 조선의 임금으로 즉위한 그는 수렴청정을 받지 않고 그 어린 나이에 누구 간섭없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였다. 숙종이 조선을 다스렸던 기간은 조선이 개국된 이래 봉당정치가 가장 활발했던 시대였다. 숙종의 치세는 시작부터 크고 작은 정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숙종은 즉위한 뒤 창덕궁에서 지냈으나 어지러운 정국으로 혼란스러울 때면 경희궁으로 와서 지내곤 하였다. 경희궁에는 승휘전承輝殿이라는 전각이 있었는데, 승휘전은 광해군이 경덕궁을 영건할 당시 세자의 정침으로 건립된 것이다. 광해군은 1616년에 경덕궁을 영건하기 시작하여 1620년에 마쳤다. 승휘전은 이 시기에 조성되었다. 경희궁이 완공되고 동궁의 첫 주인은 소현세자昭顯世子였다. 1655년에 승휘전을 헐어 창덕궁 수리공사의 자재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휘전이 세자의 정침이라는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다. 현재 승휘전은 소실되어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궁궐지宮闕志>에는 용복전隆福殿 동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숙종 24년인 1698년에 중궁전 소속 주방에서 일어난 불이 승휘전으로 옮겨 붙어 건물이 전부 타버렸다. 세워진지 80년도 못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참고도판 | <숙종어필칠언시肅宗御筆 七言詩>, 경기도 박물관 소장 (보물 16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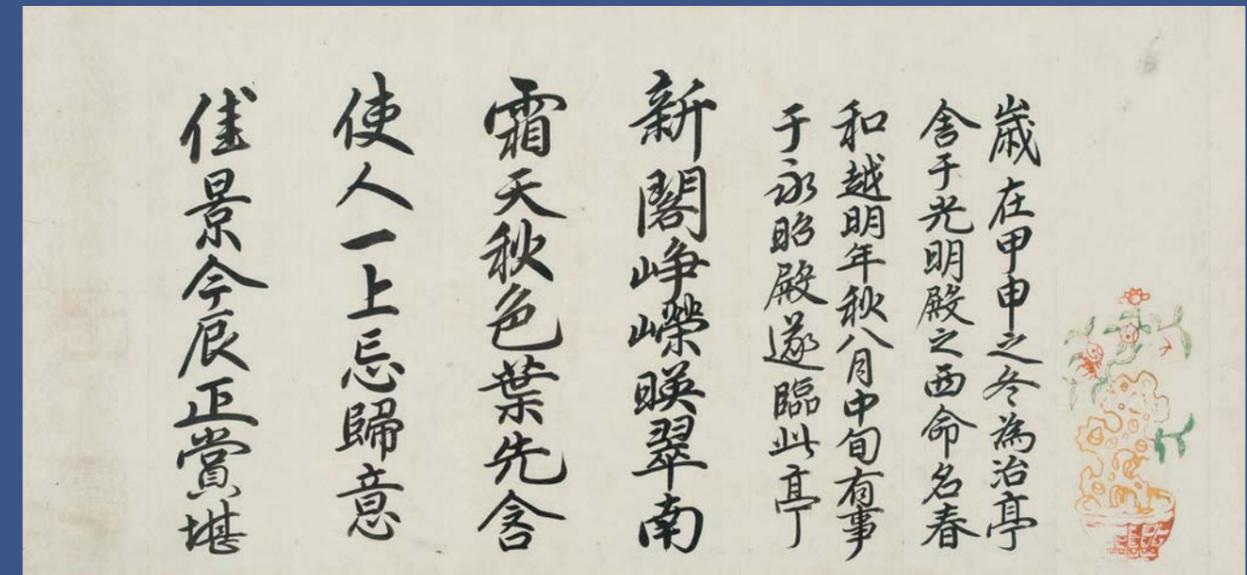
1698년 숙종은 자신이 세자 때 머물던 경덕궁 승휘전에 한밤중 불이 옮겨붙어, 그곳에 있던 나인內人 두 명이 불에 타 죽었다는 말을 듣는다. 숙종은 참담한 마음을 안고 글 한 편을 종이에 적는다. 첫번째 작품은 이 때 지은 글로, 숙종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承輝殿先自天廚起火 深夜蒼黃未及走避  
兩內人燒死尤可驚慘

萬丈烈炎連斗牛 可憐白骨燼餘收  
無限煩冤無處解 天陰兩濕聽啾啾

승휘전이 수랏간에서부터 불이 나 한밤 중에 창황하여 달아나지 못하고 두 나인이 불타 죽었다고 하니 더욱 놀랍고 참담하였다.

만 길이나 되는 거센 불꽃 북두성에 잇닿을 듯, 가련하다 불타고 남은 뒤 수습한 백골이여, 한없는 번뇌와 원통함 풀어줄 곳 없고, 어둑해지자 내리는 빗방울 소리만 후둑후둑.



숙종은 경희궁에 새로이 정자를 짓고 가끔 이곳을 찾아 관악산을 바라보며 꽃놀이를 즐겼다. 1704년 갑신년 겨울이었다. 숙종은 광명전光明殿의 서쪽에 정자를 짓게 하고 이름을 '춘화정春和亭'이라 하였다. 그러나 준공 때에는 가보지 못하고 이듬해 가을, 8월 중순에 마침 영소전永昭殿에 일이 있어 처음 이 정자에 가보았다. 두 번째 작품은 이 때 지은 시의 친필이다.

歲在甲申之冬 爲治亭舍于光明殿之西 命名春和 越明年秋八月中旬 有事于永昭殿 遂臨此亭

新閣崢嶸映翠南 霜天秋色葉先含  
使人一上忘歸意 佳景今辰正賞堪

갑신(1704)년 겨울, 광명전의 서쪽에 정자를 짓게 하고 이름을 춘화정이라 하였다. 이듬해 가을 8월 중순에 영소전에 일이 있었기에 드디어 이 정자에 임하였다.

새 집이 영화당, 취한정 남쪽에 우뚝도 하니, 서리 내린 하늘에 잎이 먼저 가을 빛 머금었네. 사람 시켜 한 번 오르게 하니 돌아갈 뜻 잊었다나, 아름다운 경치를 오늘 아침에야 즐긴다네.

侍宴獻壽慶祝彌深

乙酉十月 宴時有 大朝御 製押深 字一句 東宮廣 韻睿筆 八字

041

정조대왕 正祖大王

전주全州, 형운亨運 / 1752-1800

시연헌수 경축미심 侍宴獻壽 慶祝彌深

1765년(을유)

종이에 먹/ 가배접

35x21cm

₩ 15,000,000-4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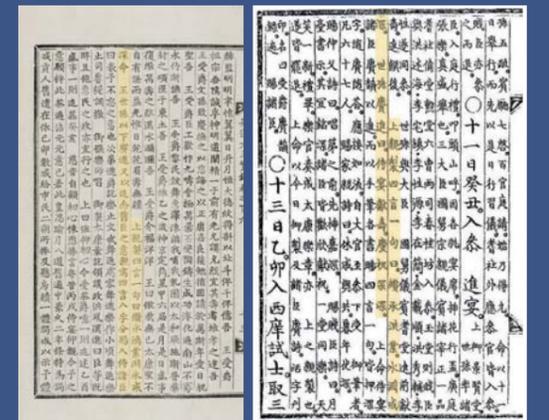
출품작은 정조 14세 때의 친필로, 정조가 세손 시절인 1765(영조 41)년 10월 11일 경현당景賢堂에서 거행된 수작례受爵禮에서 영조가 지은 시에서 깊을 심 深 자를 운으로 받아 화답하여 지어 올린 것이다.

1764(영조 40)년은 영조 즉위 40주년과 망팔월八인 71세가 되는 경사가 겹친 해였다. 왕세손과 여러 대신은 여러 차례 잔치를 갖기를 간곡하게 청해 결국 이듬해 1765년 10월 11일 경희궁慶熙宮 경현당에서 뜻깊은 행사를 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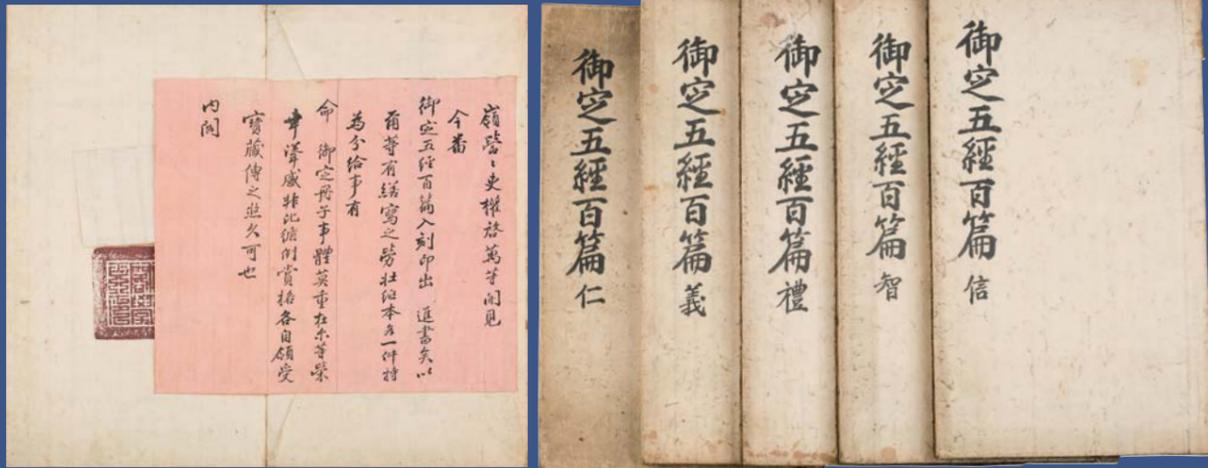
『영조실록英祖實錄』 106권 영조 41년 10월 11일 계축 1번째 기사 <경현당에 나아가 몸소 술잔을 받다[上御景賢堂, 親受爵]에 영조가 직접 繼承鴻業, 淵冰戒深 [큰 업적을 이어 받아 깊은 연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경계했노라.] 라는 사언일구 한시를 지어 왕세손 이하에게 화답하여 올리라고 명하였으며 옛 신하를 추념하는 뜻으로 몸소 이 여덟 글자를 써서 입시한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的 오빠인 김귀주金龜柱의 문집 『가암유고可庵遺稿』 권27 잡저雜著 「입조일록立朝日錄」에 실린 <을유(1765)년 10월 11일 계축 진연에 참여하다[十一日癸丑入參進宴]에 세손이 화답하여 "侍宴獻壽 慶祝彌深 [잔치에 모시며 술잔을 바치니, 경축함이 매우 깊도다]" 라는 시를 지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후 김귀주의 아버지인 오흥부원군淸興府院君 김한구金漢壽, 그리고 작은아버지 그리고 김귀주 본인 또한 이에 화답하여 深 자를 운으로 시를 지었다는 내용이 있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참고도판 | 1 『영조실록英祖實錄』 106권, 영조 41년 10월 11일 계축癸丑 1번째기사 「경현당에 나아가 몸소 술잔을 받다[上御景賢堂, 親受爵], 2 『가암유고可庵遺稿』 권27 잡저雜著 「입조일록立朝日錄」 을유乙酉 10월 11일 계축癸丑 입참 進宴



## 042

### 어정오경백편 御定五經百篇 函

종이에 목판인쇄/ 책: 목함  
42x25.5cm

₩ 5,000,000-1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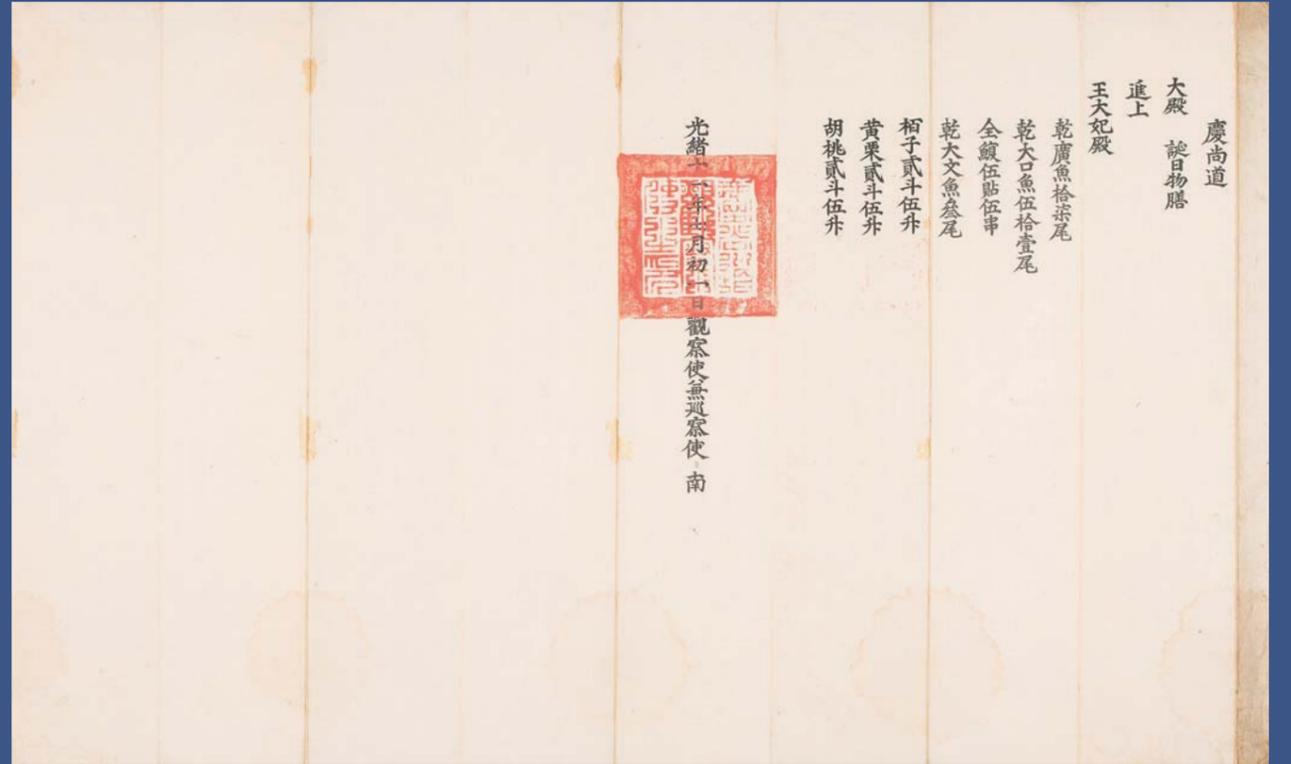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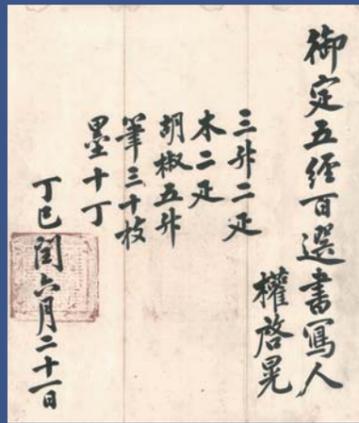
정조正祖가 유교의 다섯 경전인 『주역周易』·『서경書經』·『시경詩經』·『춘추春秋』·『예기禮記』에서 중요한 내용 99편을 추리고,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의 저술 2편을 덧붙여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정조가 당대인들이 경서를 두루 읽고 쓰면서도 몸으로 체득하지 않는 폐단을 바로잡되, “자신의 독창을 세우지 않고 고인의 설을 따라 밝히며, 넓은 논의에서 핵심을 좇아 간략한 곳으로 돌아간다(述而不作, 由博反約).”는 원칙에 입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간행의 주체는 규장각이었으나, 자료를 영남에 내려 보내 경전에 익숙한 그곳 유생으로 하여금 교정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간행을 위한 글씨는 영남의 서리書吏를 뽑아 베껴 쓰도록 하였다. 이는 그 곳 서리들의 질박한 서법을 취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영남 지방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조의 정치적 목적을 보이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출품작은 이 책을 간행한 후에 목판 글씨를 쓴 영남 영리 권계만權啓萬에게 하사한 것으로 그 내용이 담긴 내사기內賜記가 첨부되어 있다.

어정오경백편의 서사인書寫人중 한 명인 권계황權啓黃이 삼승포 두 필, 면포 두 필, 후추 다섯 되, 붓 서른 개, 먹 열 개를 하사받으며 받은 은사문恩賜文과, 쌀 두 섬, 면포 세 필을 하사받은 은사문이 책과 함께 전하는데,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년) 9월 13일 기록에서 어정책자御定冊子를 정서淨書한 경상 감영의 영리 권계만과 권계황 등에게 쌀 두 섬, 면포 세 필을 하사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 043

### 경상도 진상 물목 慶尙道 進上物目 : 신정왕후 神貞王后(1809-1890) 생신에

1885년  
종이에 먹/ 가베접  
44.8x77cm

₩ 3,000,000-6,000,000

광서11(1885)년 7월 경상도 관찰사 겸 순찰사觀察使 兼 巡察使가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생신에 바치는 경상도의 진상품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大殿 誕日物膳 進上 王大妃殿' 이라고 적혀 있으며 문서의 끝부분에는 관찰사의 관인官印이 찍혀 있다. 진상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 건광어乾廣魚 17마리(尾)
- 건대구어乾大口魚 51마리(尾)
- 전복全鮑 5첩(貼) 5관(串)
- 건대문어乾大文魚 3마리(尾)
- 백자栢子 2말(斗) 5되(升)
- 황粟黃栗 2말(斗) 5되(升)
- 호도胡桃 2말(斗) 5되(升)

044

을묘사마방목 乙卯司馬榜目

책 32.5x19.8cm

₩ 2,500,000-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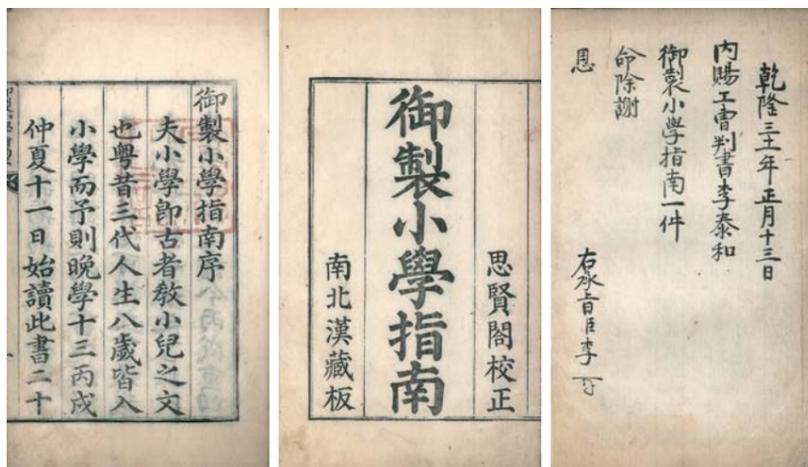


045

소학지남 小學指南

책 33.5x21cm

₩ 1,500,000-3,500,000





## 046

우현 송영방 牛玄 宋榮邦  
은진恩津/ 1936-2021

묵매 墨梅  
1993년(계유)  
종이에 수묵/ 액자  
23.7x39.5cm

₩ 400,000-1,000,000

君子故鄉來 應知故鄉事  
來日綺窗前 寒梅著花未

그대 고향에서 오셨으니  
고향 소식을 아시겠지요.  
오던 날 우리집 비단창 앞  
겨울 매화에 꽃이 다 폈는지요.



## 047

남농 허건 南農 許健  
양천陽川/ 1907-1987

청송 靑松·홍매 紅梅  
1981년(신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7.7x9cmx2

₩ 400,000-1,500,000





048

정재 오일영 靜齋 吳一英  
해주海州/ 1890-1960

유향 幽香  
1934년(갑술)  
종이에 수묵/ 액자  
146x39cm

₩ 1,000,000-2,300,000



049

구룡산인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鎭  
안동安東, 성구聖九/ 1878-1968

묵죽 墨竹  
종이에 수묵/ 액자  
124.7x31.5cm

₩ 500,000-1,200,000



050

무호 이한복 無號 李漢福  
전의全義/ 1897-1944

운룡 雲龍  
종이에 수묵/ 액자  
56x44.5cm

₩ 1,500,000-4,000,000



051

풍곡 성재휴 豊谷 成在休  
창녕昌寧/ 1915-1996

군조 群鳥  
1991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7.5x24.5cm

₩ 700,000-1,8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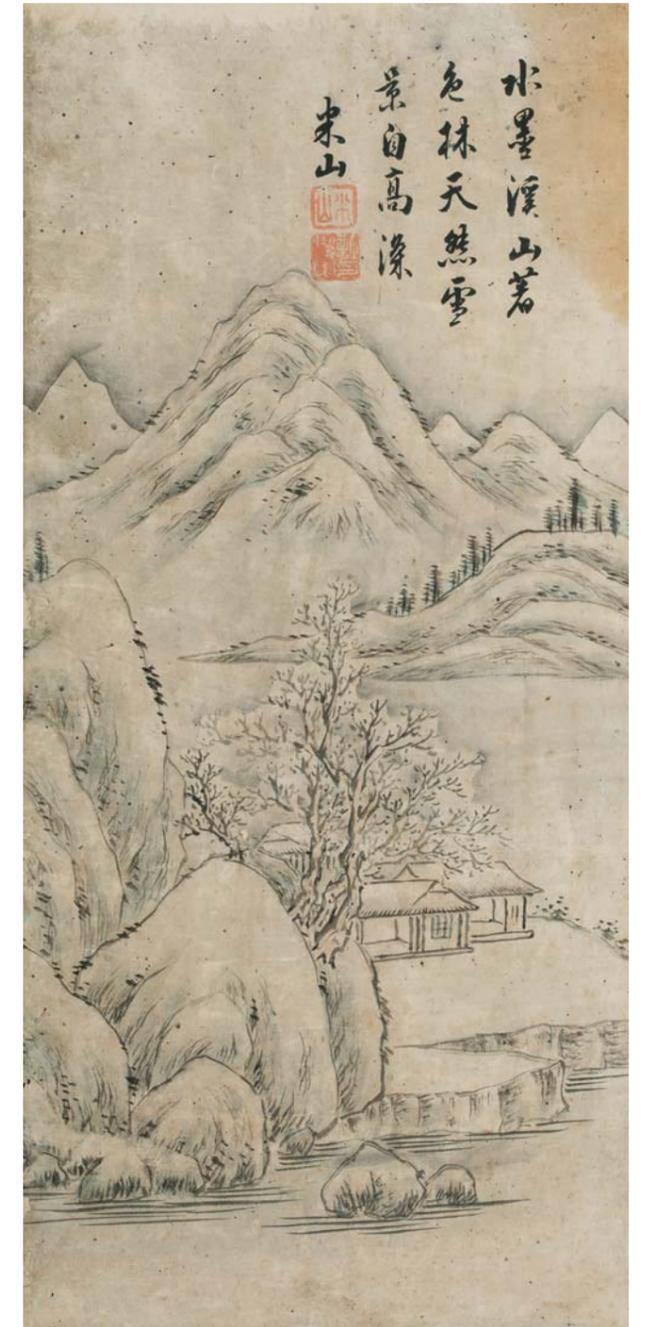


052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陽川, 정일精一/ 1808-1893

목모란 墨牡丹  
종이에 수묵/ 액자  
99.5x36cm

₩ 600,000-1,400,000



053

미산 허형 米山 許滢  
양천陽川/ 1862-1938

설경 雪景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0.5x27.8cm

₩ 300,000-800,000



054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鎭  
남평南平, 용삼容三/ 1868-1933

묵란 墨蘭  
종이에 수묵/ 족자  
129x32.5cm

₩ 800,000-2,000,000

055

제당 배렴 霽堂 裴濂  
성산聖山/ 1911-1968

매조 梅鳥  
1965년(을사)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1.8x40.4cm

₩ 300,000-8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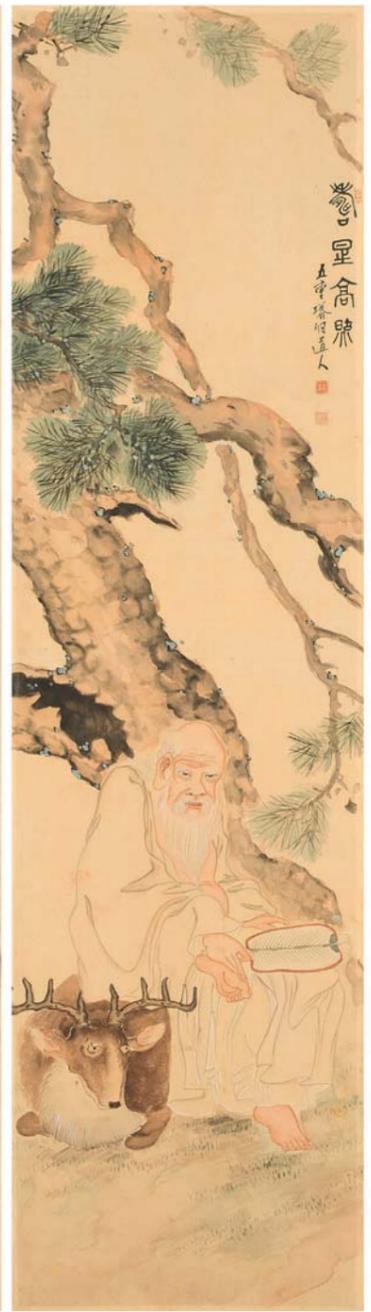
056

청강 김영기 靑岡 金永基  
남평南平/ 1911-2003

산가유흥 山家有興  
1988년(무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7x42.8cm

₩ 300,000-800,000





057

정재 최우석 鼎齋 崔禹錫  
1899-1964

고사인물팔곡병 高士人物八曲屏  
비단에 수묵담채/ 병풍  
127.5x34.6cmx8

₩ 4,000,000-9,000,000



058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제  
해주海州, 중명중銘/ 1864-1953

소림 조석진 小琳 趙錫晉 화  
함안咸安, 응삼應三/ 1853-1920

낙양부귀장원홍 洛陽富貴狀元紅  
제 1943년(계미)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31x40.3cm

₩ 700,000-2,000,000



059

소호 김응원 小湖 金應元  
김해金海, 석범錫範/ 1855-1921

석란 石蘭  
종이에 수묵/ 족자  
132.8x40.5cm

₩ 600,000-1,300,000



060

츠지 가코 都路華香  
1871-1931

조선 노인 朝鮮老人  
종이에 수묵담채/ 족자  
135.5x31.4cm

₩ 500,000-1,400,000

061

아사카와 노리타카 浅川伯教

1884-1964

분청사기 粉靑沙器

종이에 수묵/ 족자  
137x33.2cm

₩ 2,000,000-4,500,000



伯教寫



062

남계 이규선 南溪 李奎鮮

1938-2014

시창청공 詩窓淸供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8x70cm

₩ 300,000-700,000

063

탄월 김경원 灘月 金景源

1901-1967

설경 雪景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9.5x39.5cm

₩ 300,000-700,000





064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鎭

남평南平, 용삼容三/ 1868-1933

묵죽십이곡병 墨竹十二曲屏

종이에 수묵/ 병풍  
135.5x31.8cmx12

₩ 6,000,000-14,000,000



## 065

### 무릉도원 武陵桃源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06x68cm

₩ 20,000,000-50,000,000

운해 위로 솟은 기이한 형태의 암석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마을을 그린 그림으로 동양의 이상향을 대표하는 무릉도원을 개성있는 구도로 표현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담묵을 써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담묵으로 처리하였는데 분홍색으로 표현한 복숭아나무와 엷은 청색을 써 표현한 운해가 대비되어 더욱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무릉도원은 무릉에 사는 한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 복숭아꽃이 만발한 별천지에 이르렀다는 중국 진나라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를 바탕으로 한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무릉도원도는 어부가 타고 온 배 한척과 동굴, 그리고 험준한 산세를 지나 비로소 나타나는 복숭아꽃이 흐드러진 이상향, 무릉도원이 펼쳐지는 형태를 취한다. 반면 출품작은 무릉도원의 이야기를 담은 형식이 아닌 무릉도원의 이미지 자체를 형상화한 형태로 그렸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무릉도원은 운해 위에 솟아있는 모습으로 묘사해 이르기 어려운 이상향의 모습을 강조하고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아래부터 위로 굽이쳐 돌아 올라가는 길을 따라 시선을 이끄는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기이한 형태의 암석이 마을을 감싸며 솟아있어 복숭아꽃이 만발한 마을은 더욱 평온하고 아늑하게 느껴진다. 주변에는 작은 봉우리들이 무릉도원이 있는 산을 둘러싸고 있고 화면 하단에는 마치 무릉도원으로 건너 가는 다리를 형상하는 아치형의 괴석이 솟아있다. 봉우리와 암석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금강산의 봉우리를 표현할 때 주로 보이는 묘사법으로 모두 무릉도원을 향해 올라다보거나 내려다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출품작은 무릉도원을 표현한 여러 그림 중에서 매우 개성있는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금강산 그림에 자주 나타나는 암석 표현법을 쓴 점이 독특하다. 또 주제가 되는 내용은 세밀하게 표현하면서도 큰 화면의 배경 여백을 살려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066

심향 박승무 深香 朴勝武  
반남潘南/ 1893-1980

연해풍범 連海風帆  
1965년(을사)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2.5x62.5cm

₩ 500,000-1,000,000



067

제당 배렴 霽堂 裴濂  
성산靈山/ 1911-1968

추강조어 秋江釣漁 : 선면  
1966년(병오)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2x44cm

₩ 600,000-1,300,000

068

충 忠·신 信

종이에 수묵채색/ 액자  
96.2x28.6cmx2

₩ 800,000-2,000,000



069

책가 冊架

종이에 채색/ 족자  
60x32.6cm

₩ 300,000-1,000,000





070

퇴촌 김식 退村 金埴  
연안延安, 중후仲厚 / 1579-1662

수조 樹鳥  
비단에 수묵/ 액자  
25.5x15.6cm

₩ 2,500,000-5,000,000



071

화조영모팔곡병 花鳥翎毛八曲屏·  
시고 詩稿 6폭

종이에 수묵담채, 종이에 먹/ 병풍  
98.7x39.8cmx8

₩ 8,000,000-16,000,000





072

화조영모 花鳥翎毛 3폭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8.5x12cmx3

₩ 1,500,000-4,000,000



073

작가미상

산수 山水  
비단에 수묵/ 액자  
22.7x34cm

₩ 2,000,000-4,500,000



074

송학 松鶴

종이에 수묵/ 족자  
96x67.7cm

₩ 1,500,000-4,000,000



075

작가미상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51.7x30.8cm

₩ 500,000-1,300,000

076

묵로 이용우 墨鸞 李用雨

경주慶州, 창운蒼潤/ 1902-1952

화조 花鳥 대련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1x31cmx2

₩ 1,000,000-2,500,000



077

산수 山水 : 지직화 紙織畫

종이에 수묵담채/ 족자  
103.5x49.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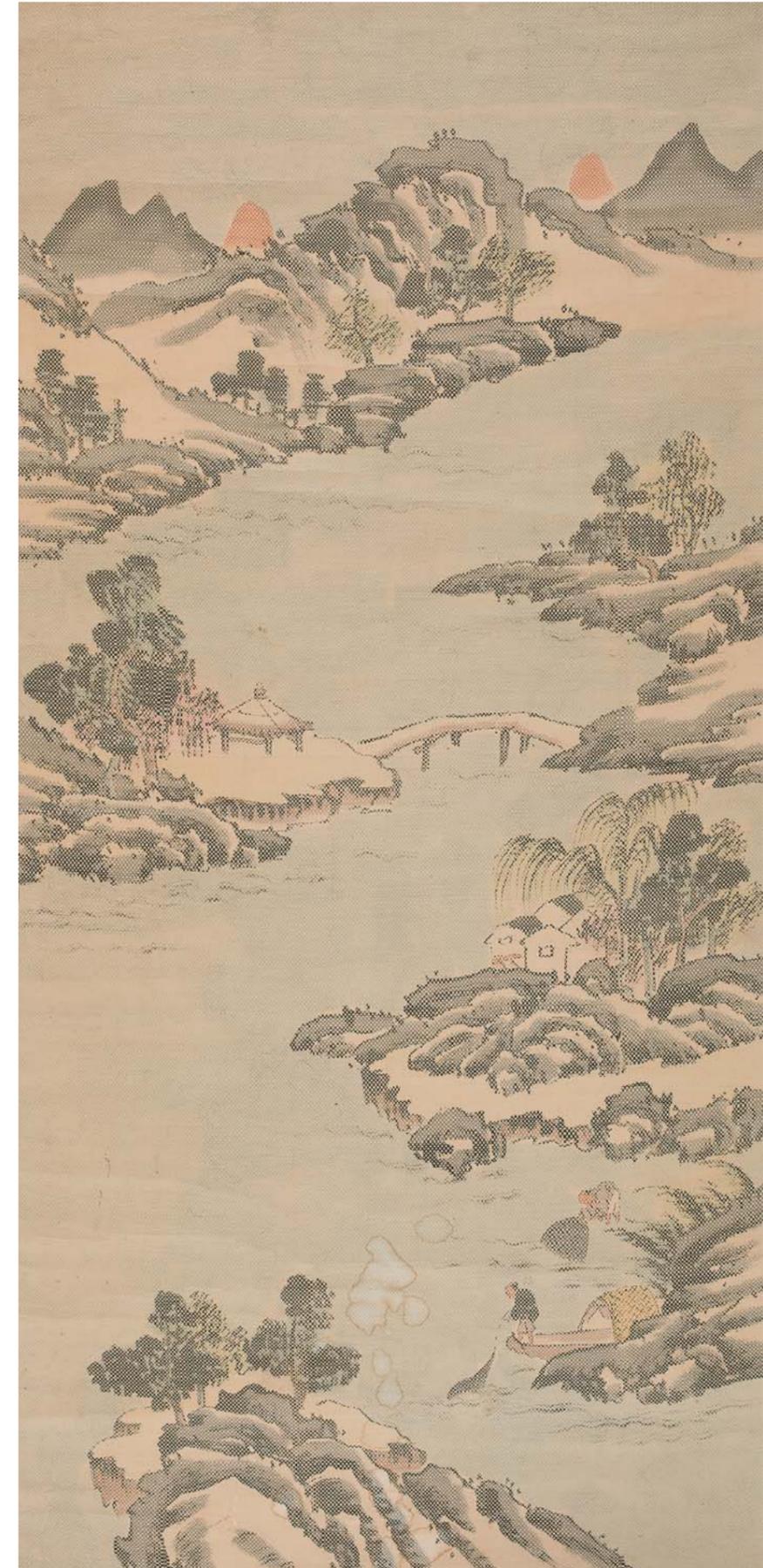
₩ 2,000,000-5,000,000

지직화는 조선 중·후기에 유행한 양식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이를 직조하여 직물의 구조로 표현한 회화로 '직조회화 織造繪畫'라고도 칭한다.

그 제작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고도의 기술을 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현전하는 작품이 많지 않다. 장식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화려한 채색이 가미된 화조영모화류와 같은 장식용으로 주로 제작되었다.

지직화는 그림을 그린 후 종이를 재단하여 엮는 방법과 먼저 종이를 직조한 후 부분적으로 선과 채색을 추가하여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이 있다. 본 출품작은 전자의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산의 능선을 짙은 먹으로 중첩하여 표현한 산세와 열은 담채로 표현한 다른 경물들이 대비되는 산수화이다. 화면 중앙 우측에는 작은 마을이 보이며 강 건너에는 작은 띠집이 자리하고 있다. 하단에는 어부 두명이 고기잡는 모습이 보이는 전형적인 강가의 풍경을 그렸다. 세로로 긴 화면에 근경, 중경, 원경의 삼단 구조가 두드러지는 구도가 특징이다.

참고문헌 | 김수연, "회화와 직조의 결합, 紙織畫 연구", 미술사학연구 306, 2020





天門角上有 例竹謂之天

천문봉이 모퉁이 쪽에 있는데,  
대나무로 보자면 그것이 하늘이라네.

密可以泊晴煙 疏可以漏宵月

빽빽하니 맑은 연기를 머물게 할 수 있고,  
성기니 밤 달빛이 새어 나올 수 있게 하네.

麝墨芸香小玉叢 澹煙橫月翠玲瓏

향기로운 먹으로 쓴 시의 운치가 작은 옥 떨기요,  
뿌연 연기는 달을 비껴 푸른빛이 영롱하네.

## 078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陽川, 정일精一 / 1808-1893

묵죽 墨竹  
종이에 수묵/ 액자  
27.3x95.2cm

₩ 5,000,000-13,000,000



079

월전 장우성 月田 張遇聖  
단양(丹陽) / 1912-2005

상월조춘림 霜月照春林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52x38cm

₩ 500,000-1,300,000



080

정재 최우석 鼎齋 崔禹錫  
1899-1964

초충 草蟲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42x31cm

₩ 400,000-1,000,000



081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 1891-1977

애련 愛蓮  
1947년(정해)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132x132cm

₩ 3,000,000-7,000,000



082

작가미상

숙조 宿鳥·시고 詩稿  
종이에 수묵, 비단에 먹/ 액자  
22x24.5cm

₩ 2,000,000-6,000,000

083

유포양육은 乳哺養育恩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2.8x32.8cm

₩ 800,000-2,000,000



084

작가미상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4.5x24.7cm

₩ 800,000-1,600,000



# 085

정재 오일영 靜齋 吳一英  
 해주海州/ 1890-1960

고사인물십곡병 체본 高士人物十曲屏體本  
 종이에 먹/ 가병품  
 133x43cmx10

₩ 4,000,000-9,000,000

출품작은 고사인물도 체본 10폭이다. 체본은 서화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 쓰거나 그리게 하기 위해 가르치는 사람이 써준 글씨나 그려준 그림을 말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서화 교육에서 중요한 학습 교재였으며, 가르치는 사람의 서체나 화풍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전수하는 매체로 인식되었다. 한국 근대기의 대표적 서화 교습기관인 서화미술회書畫美術會나 안중식安中植의 화숙齋인 경묵당耕墨堂 등에서는 주로 스승의 체본이나 중국 화보를 임모하는 방식으로 서화교육이 이루어졌다. 서화미술회 구성원들은 스승의 체본을 매개삼아 산수, 고사인물 등을 중심으로 필법을 수련하였는데, 이도영李道榮은 서화미술회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체본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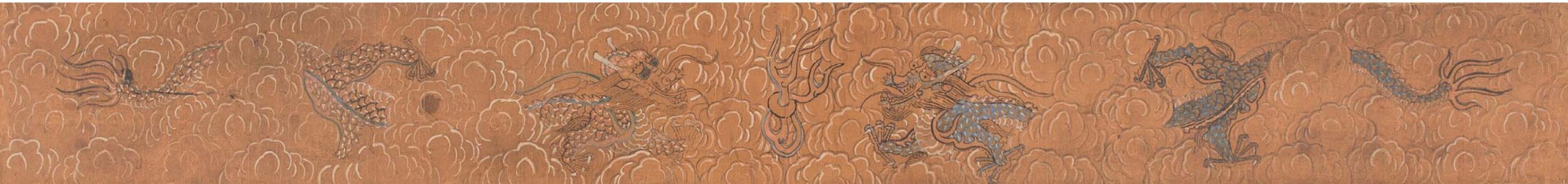
출품작은 '왕희지관아王羲之觀鵝', '고사세동高士洗桐' 등 10폭의 고사인물의 일화를 그린 고사인물도 체본으로 먹으로 윤곽을 그린 뒤 각 면을 어떤 색으로 칠할지 표시되어 있다. 각 폭의 하단에 '단경자丹耕子' 라는 주문방인이 찍혀있는데, 이는 오일영의 호號이다. 오일영은 오세창吳世昌의 조카로 1911년 서화미술원에 입학하여 안중식과 조석진趙錫晉으로부터 그림을 배우고 1914년 제1기생으로 졸업했다. 이 체본은 오일영이 서화미술원에 입학하여 그림을 배우던 시절 스승으로부터 받은 체본이거나 오일영이 제작한 체본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소연, 「한국 근대 전문 서화교육의 선도, 서화미술회」, 미술사논단 제36호, 2013, pp.117-139  
 김예진, 「이도영의 정물화 수용과 그 성격 : 사생과 내셔널리즘을 통한 새로운 회화 모색」, 미술사학연구 제296호, 2017, pp.175-203



참고도판 | 심전 안중식 <고사인물도 체본> 종이에 수묵, 165x33.5cm 외 10폭, 케이옥션 2022년 10월 26일 메이저 경매





086

운룡 雲龍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6x230cm

₩ 1,500,000-3,000,000

087

책가 冊架

종이에 채색/ 액자  
26.1x128.7cm

₩ 1,500,000-3,000,000





088

작가미상

수하탄금 樹下彈琴 : 지두화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8.3x49.3cm

₩ 1,500,000-4,000,000



寫蘭雖小技可怡養性靈何翹却病可以延年  
난초를 그리는 것은 작은 기예이지만 하나,  
심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병을 물리칠 뿐 아니라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

089

우봉 조희룡 又峯 趙熙龍

평양平壤, 치운致雲/ 1789-1866

묵매 墨梅·묵란 墨蘭

종이에 수묵/ 액자  
23.5x31.8cmx2

₩ 12,000,000-25,000,000

조희룡은 19세기 여향문화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서화가로 매화와 난을 주로 그렸으며 글씨는 그림같이 화려하고 그림은 문기를 한껏 느낄 수 있을만큼 뛰어났다.

출품작은 그의 필치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묵매도는 매화줄기의 일부분을 크게 포착하는 대담한 구성과 과감한 먹의 운용을 보여주며 묵란도는 부드러운 필치로 짧은 난을 짧게 쳤는데 긴 난엽 하나가 화면을 가로지르며 구성미를 더해주고 있다.

'석감石感' 이라고 서명을 하고 '매수梅叟'라는 주문방인을 찍었는데 임자도 유배시절에 그린 작품으로 추정된다.

090

석파 이하응 石坡 李昰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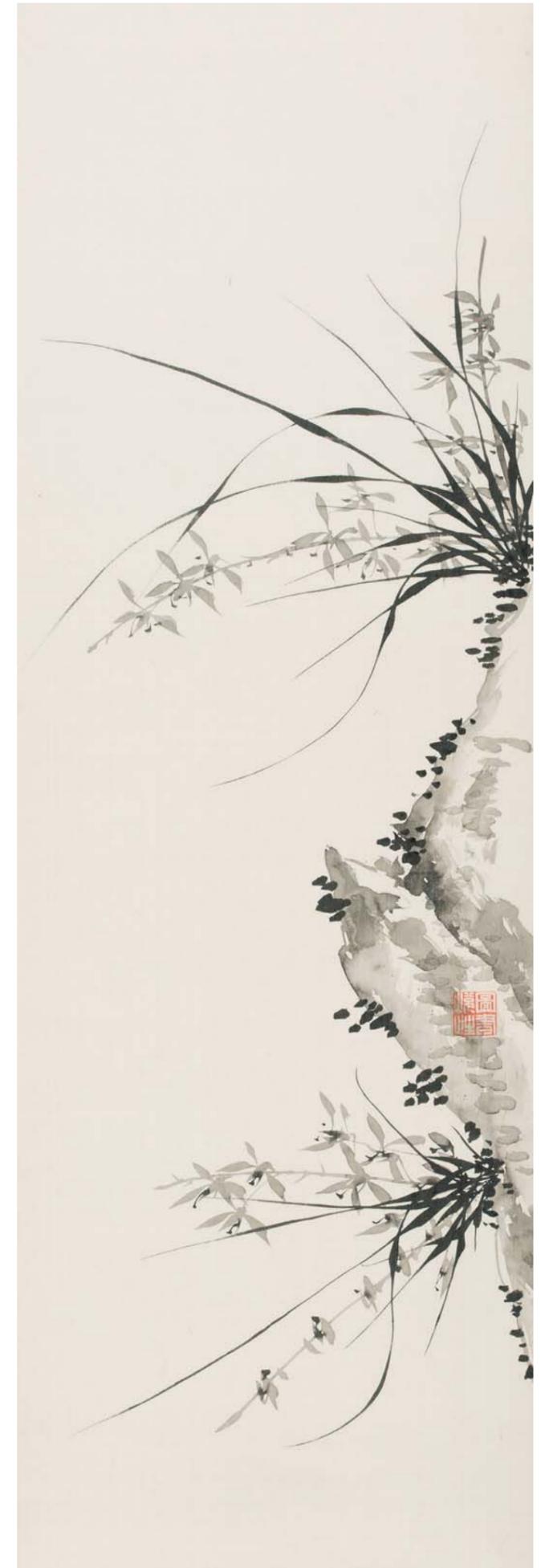
전주全州, 시백時伯 / 1820-1898

석란 石蘭 대련

비단에 수묵/ 액자  
119x39.6cmx2

₩ 15,000,000-32,000,000

출품작은 이하응이 '구고九臯' 라는 인물에게 그려준 석란도 대련이다. 정확한 제작연대는 쓰여있지 않지만 난잎의 표현 방식과 작품에 사용된 인장으로 미루어 보아 1886년 전후에 그려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농담 차이를 크게 두어 먹만을 사용해서 그렸음에도 화려한 느낌을 주며 속도감 있게 처리된 잎의 처리와 무리 지어 핀 꽃의 유려한 표현은 이하응의 완숙한 필치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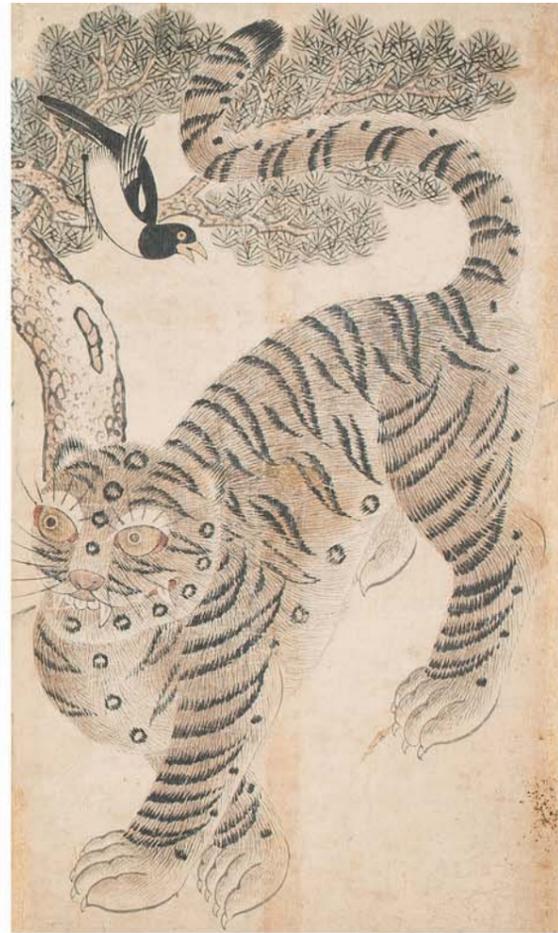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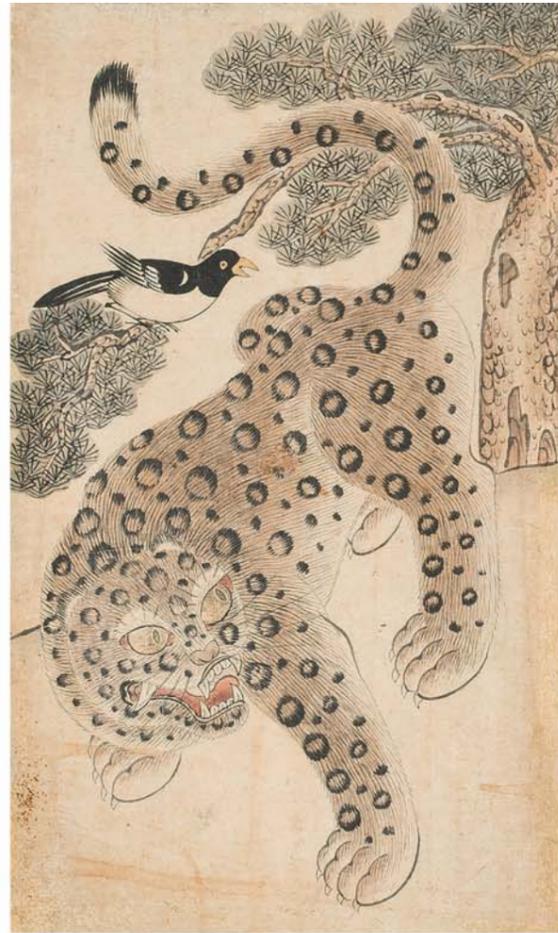


091

호작도팔곡병  
虎鵲圖八曲屏

종이에 수묵담채 / 병풍  
55.7x33.2cmx8

₩ 20,000,000-45,000,000



## 석지 채용신 石芝 蔡龍臣

평강平康, 대유大有 / 1848-1941

## 태호 정영원 台湖 鄭榮源 초상 肖像

1927년

비단에 수묵채색 / 족자  
129x74.2cm 외

## 농산 정휴탁 農山 鄭休鐸 호패 號牌

외 진주정씨가 晉州鄭氏家 전래 유물 일괄

₩ 150,000,000-300,000,000

출품작은 석지 채용신이 그린 태호 정영원의 진신좌상 초상화, 정영원의 아들인 농산 정휴탁의 호패, 정휴탁의 아들인 정동환 부부의 진신좌상 초상화 한 쌍, 정영원의 조부인 정면규의 과지 두 점과 정영원이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복과 신발 등 정영원家的 전래 유물이다.

정영원(1853-1940)은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대서大舒, 호는 태호台湖로 1853년 전라북도 고창 삼태에서 태어났다.

충장공忠莊公 정황鄭瑬의 후예로, 일찍이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1798-1879)과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1846-1916)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경전에 해박하였다. 바른 학행을 몸소 실천하여 주변에 명성이 높았고, 이에 학행으로 천거되어 유릉참봉裕陵參奉을 지냈다. 부모를 섬길 때나 선조先祖의 덕업을 받들 때 모두 정성을 다하고 공경하였다. 말년에는 고향에 태호정廳湖亭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는 일로 소임을 다하였으며 1940년 88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472-1번지에 정영원 시은비鄭榮源施恩碑가 세워져 있다.

초상화의 표현법을 살펴보면 잔주름, 요철, 수염 등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였으며 얼굴에 음영도 잘 표현되어 있다.

단학홍배가 새겨진 녹색 바탕의 관복에 전체적으로 선 처리를 하여 관복의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으며 배경에 산수화 병풍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채용신 초상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작품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하고 장황 또한 당대 제작된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사료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채용신은 1905년 이후 전라도로 낙향하여 어진 화사 출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라도 지역의 항일운동가 및 유학자들과 교유하며 여러 인물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이후 전통 초상화법을 토대로 서양화법과 사진의 표현 요소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화법을 구축하고 근대적 초상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채석강도화소蔡石江圖畫所'를 운영하며 다수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정영원의 초상화 또한 채용신이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며 그린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고창의 마을 제1집』, 고창학술문화연구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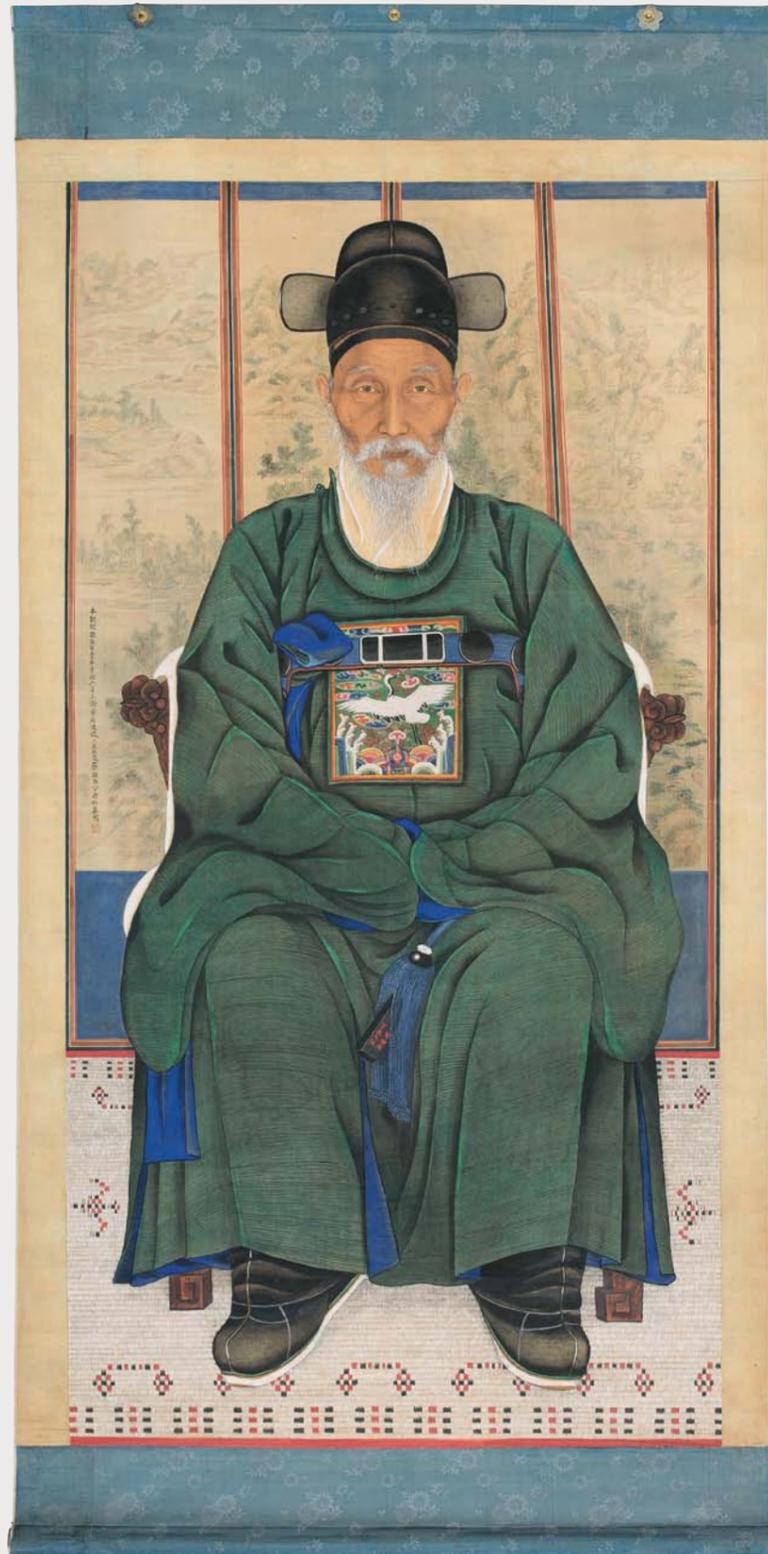


1 태호 정영원 台湖 鄭榮源(1853-1940) 초상 肖像

1927년(신유)  
비단에 수묵채색/ 족자  
129x74.2cm

출품작은 관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태호 정영원 台湖 鄭榮源(1853-1940)의 전신좌상 초상화이다.

좌측 중앙에 해서체로 '本朝開國五百三十辛酉六月上澣前府使從二品石芝蔡龍臣八十翁移模寫'라고 적혀 있다. 채용신이 1921년 6월 상순에 제작한 작품임을 알 수 있는데 '移模寫'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초상화를 베껴 그린 것으로 보여진다. 호패에 '癸丑生 丁未入仕'라고 적혀 있어 정영원의 생년(1850년)과 유릉참봉에 임명된 해(1907년)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농산 정휴탁 農山 鄭休鐸(1872-1915) 호패 號牌

1903년(계묘)  
물소뿔에 조각, 혼합재료  
10.5x3x1.5cm

농산 정휴탁 칙명 勅命

1904년(광무8)  
종이에 먹  
39.1x48.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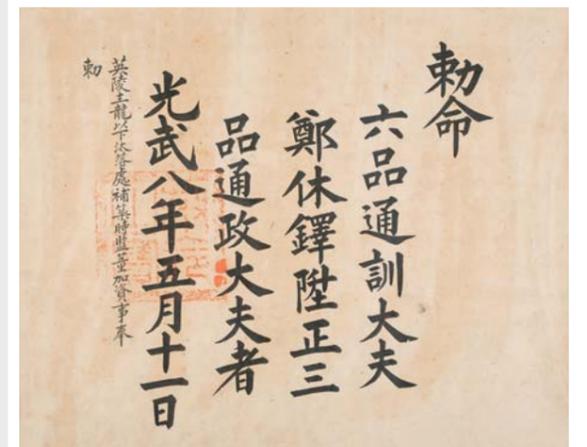


정휴탁 鄭休鐸은 정영원의 아들로, 자는 자경자警, 호는 농산農山이다. 1872년 고창 삼태에서 태어났으며 1903년 주사主事로 서임敍任되어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거쳐 정3품에 올라 1905년 장수군수長水太守를 지냈다. 성품이 본래 청렴결백하여 권귀權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서책을 애독하여 식견이 해박하였으며 벼풀기를 좋아해 궁족窮族을 돕고 향인鄕人을 구제하는데 노력하였다. 위선爲先에 성의를 다하여 선조의 석의石儀를 갖추고 제전祭田을 마련하였다. 저서로는 『농산유고農山遺稿』가 있다.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1846-1916)이 쓴 묘갈명이 전한다. 현재 고창 삼태마을에 정휴탁고가鄭休鐸古家가 남아있는데 정휴탁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건립한 것이다.

정휴탁 관련 유물은 호패와 칙명 두 점이 전하는데, 보라색 술이 달린 물소뿔로 제작된 호패에는 앞면에 이름과 출생연도, 관직에 진출한 연도가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호패의 발행 연도가 새겨져 있다. 칙명은 광무8(1904)년에 받은 것으로 6품 통훈대부通訓大夫 정휴탁을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도판 | <정휴탁 고가鄭休鐸古家>, 디지털고창문화대전 <정휴탁 고가 편액鄭休鐸古家扁額>, 디지털고창문화대전



3 정동환 鄭東煥 부부 초상 夫婦肖像

비단에 수묵담채  
121x56.5cm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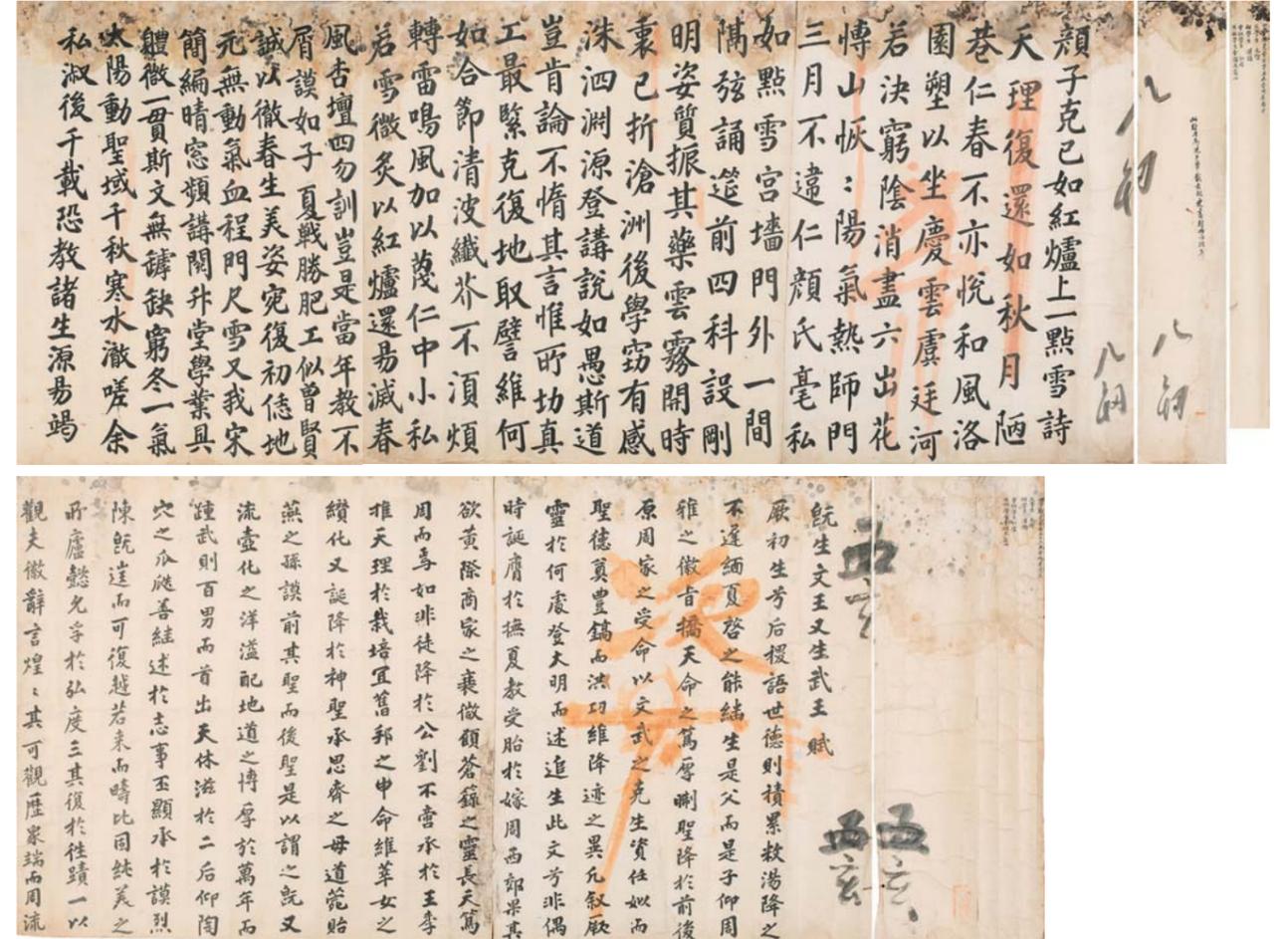
이 작품은 정휴택의 아들인 정동환鄭東煥과 그의 부인을 그린 부부 초상화이다. 정동환은 무성서원 도내 유림 장의武城書院 道內 儒林 掌議였으나 36세에 낙마 사고로 요절하여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정동환이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1891-1955)에게 거액의 의연금義捐金을 보낸 이력이 있으며 이에 감사의 표시로 김성수가 보낸 편지가 집안에 전하고 있다.



참고도판 | <정동환 부부 사진>

4 노포 정면규 老圃 鄭冕奎(1804-1868) 과지 科紙 2점

종이에 먹  
78x175.5cm, 84x17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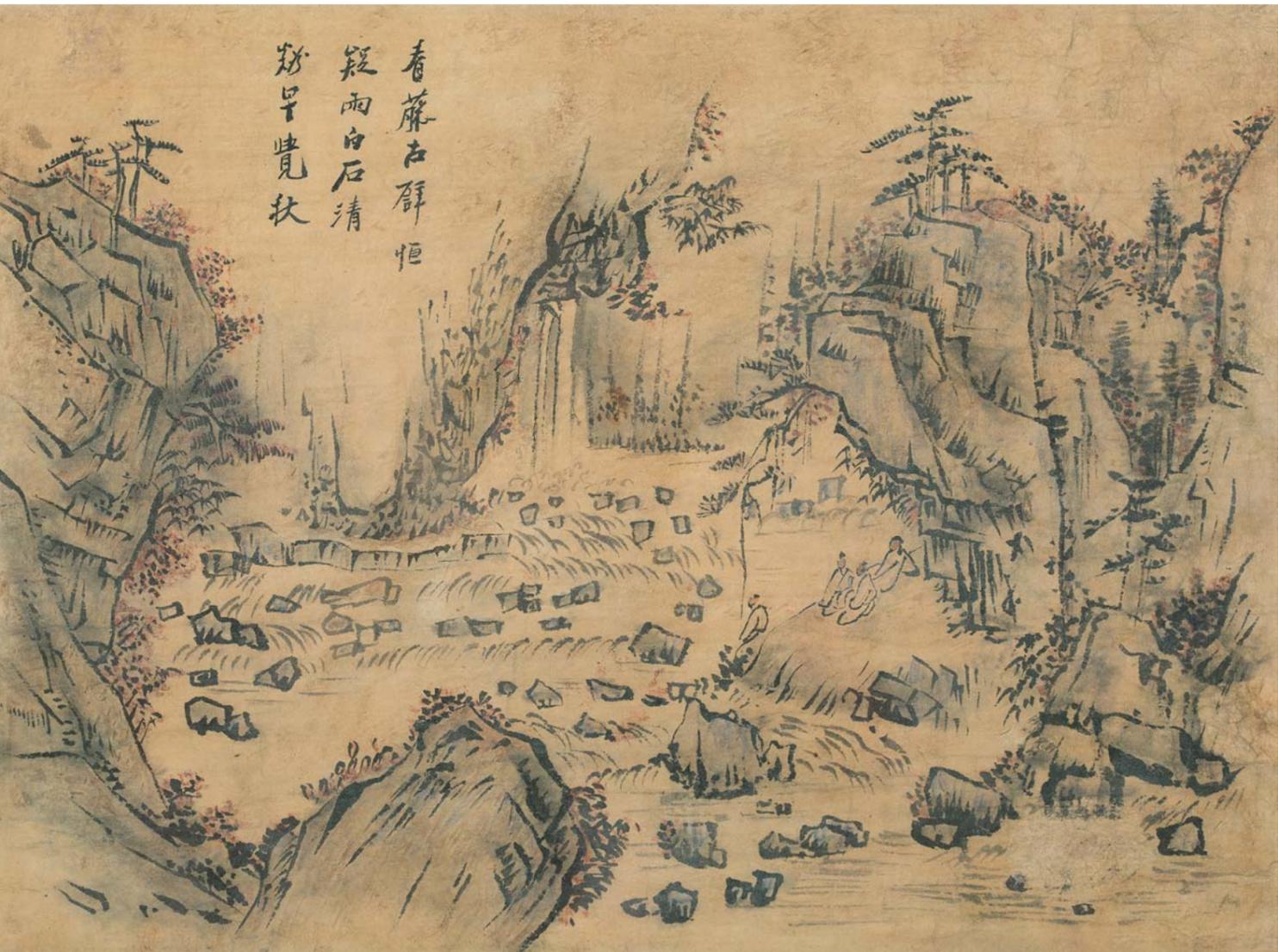


정영원의 조부인 정면규鄭冕奎(1804-1868)는 자는 가현可軒, 호는 노포老圃이다. 정황鄭璜의 후손으로 노사 기정진蓋沙 奇正鎭(1798-1879)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닦아 학행이 뛰어났다. 흥선대원군이 서울에 대보단大報壇을 짓고 만동묘를 헐어 부수자, 영조 때 상주의 이만부李萬敷 등이 만동묘의 훼손을 주장한 것을 들어 그 설치의 의의와 과정 그리고 제향祭享의 의미를 담아 그 부당함을 성토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저서로 『노포유고老圃遺稿』가 있는데 기우만奇宇萬의 서문序文과 손자 정영원鄭榮源의 발문跋文을 붙여 목활자본 4권 1책으로 1916년에 간행되었다.



정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령團領과 전복戰服, 사모紗帽, 정자관程子冠 2점, 각대角帶, 목화木靴, 유혜油鞋를 비롯하여 국상 때 입는 삼베로 만든 백단령白團領과 전복, 백사모白紗帽, 각대, 백목화白木靴, 호패號牌 술 등이 함께 출품되었다. 또 관복을 보관했던 관복함官服函과 신발을 보관했던 함이 함께 출품되어 더욱 그 보존 가치가 높다.





093

작가미상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8.2x38.8cm

₩ 2,000,000-4,500,000

094

수운 김용수 首雲 金龍洙  
1901-1934

금산사소견 金山寺所見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7x24.1cm

₩ 500,000-1,300,000



095

남천 송수남 南天 宋秀南  
1938-2013

산수 山水: 선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8x56cm

₩ 500,000-1,200,000



096

화조팔곡병 花鳥八曲屏

종이에 수묵채색 / 병풍  
83.7x38.7cmx8

₩ 15,000,000-35,000,000





097

두산 정술원 斗山 鄭述源  
1885-1955

기려산수 騎驢山水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19x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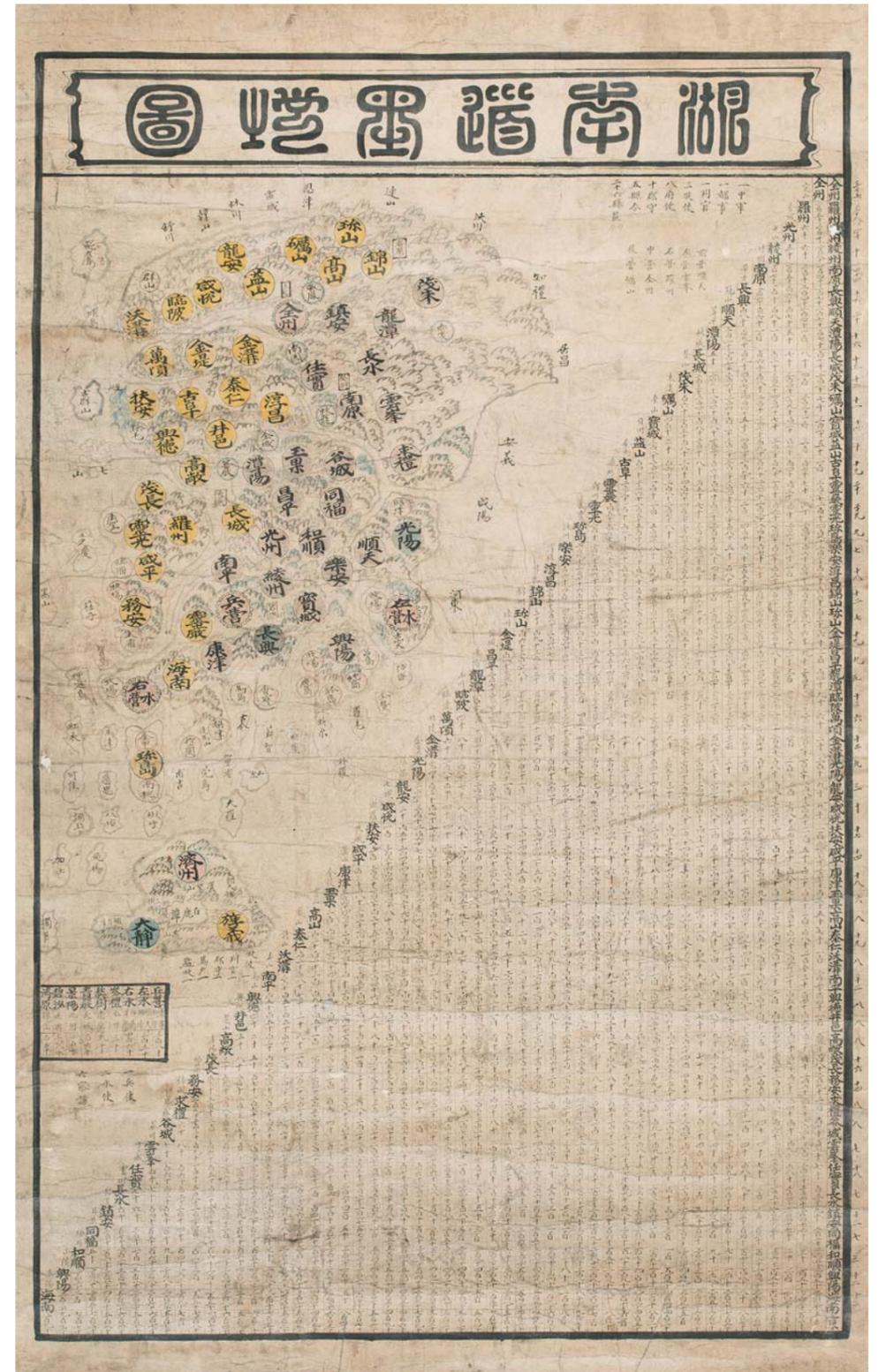
₩ 300,000-700,000

098

백송 지창한 白松 池昌翰  
충주忠州/ 1851-1921

게蟹  
종이에 수묵/ 액자  
24x36cm

₩ 600,000-1,400,000



099

호남도리지도 湖南道里地圖

종이에 수묵담채, 먹/ 족자  
100x63cm

₩ 4,000,000-8,000,000



100

남천 송수남 南天 宋秀南

1938-2013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9.5x13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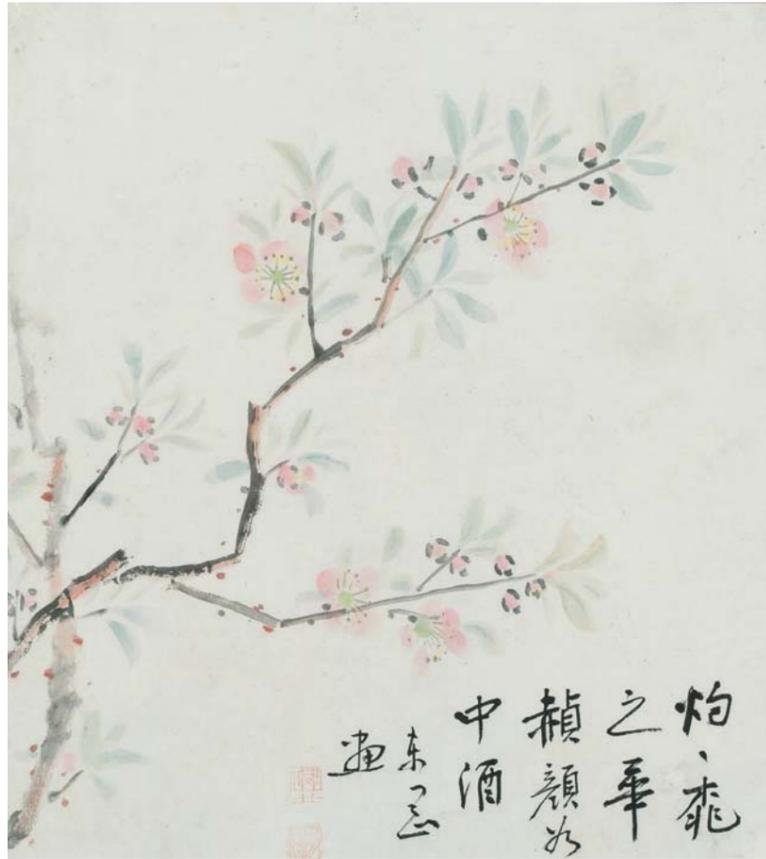
₩ 2,500,000-6,000,000

101

동강 정운면 東岡 鄭雲勉  
연일延日/ 1906-1948

복숭아꽃 桃花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9.7x26.7cm

₩ 400,000-1,000,000



102

작가미상

주유관폭 舟遊觀瀑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3.3x33.5cm

₩ 800,000-2,000,000



103

소정 변관식 小亭 卜寬植  
초계草溪/ 1899-1976

시창청공 詩窓清供·전가풍미 田家風味  
1962년(임인)  
종이에 수묵담채/ 가배접  
128x52cmx2

₩ 2,500,000-5,000,000



104

운룡 雲龍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18x71cm

₩ 5,000,000-1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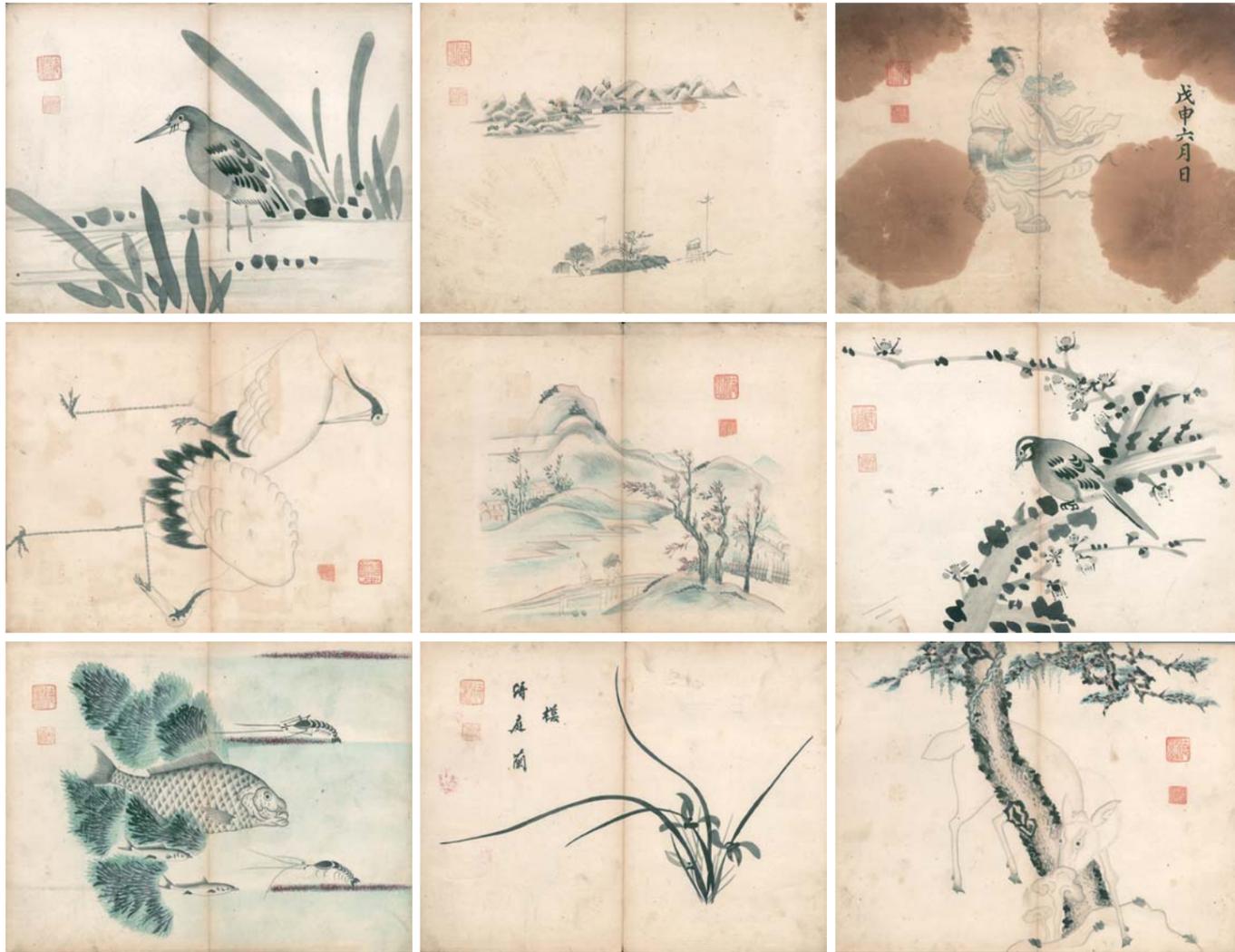


105

송하고사 松下高士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3.5x47.8cm

₩ 3,000,000-8,000,000



106

작가미상

산회 汕繪·회소 繪素 : 화본첩

종이에 수묵 수묵담채/ 첩  
33x21.8cm, 28.8x19cm

₩ 5,000,000-10,000,000

출품작은 화본 두 책으로 『산회汕繪』에는 총 47면에 걸쳐 나비, 곤충, 조류, 서수 등이 정밀하게 묘사되어있고 『회소繪素』에는 총 49면의 화면에 고사인물, 산수, 화조 영모 등이 그려져 있다. '해산海山'과 '수복壽福' 등 총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회소』의 첫 장에 무신戊申년에 제작되었다는 간기가 남아있다.



107

심산 노수현 心汕 盧壽鉉

광주光州/ 1899-1978

천보구여 天保九如

1926년(병인)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36.2x107.5cm

₩ 800,000-2,000,000



108

청전 이상범 靑田 李象範

전주全州/ 1897-1972

지당청취 池塘淸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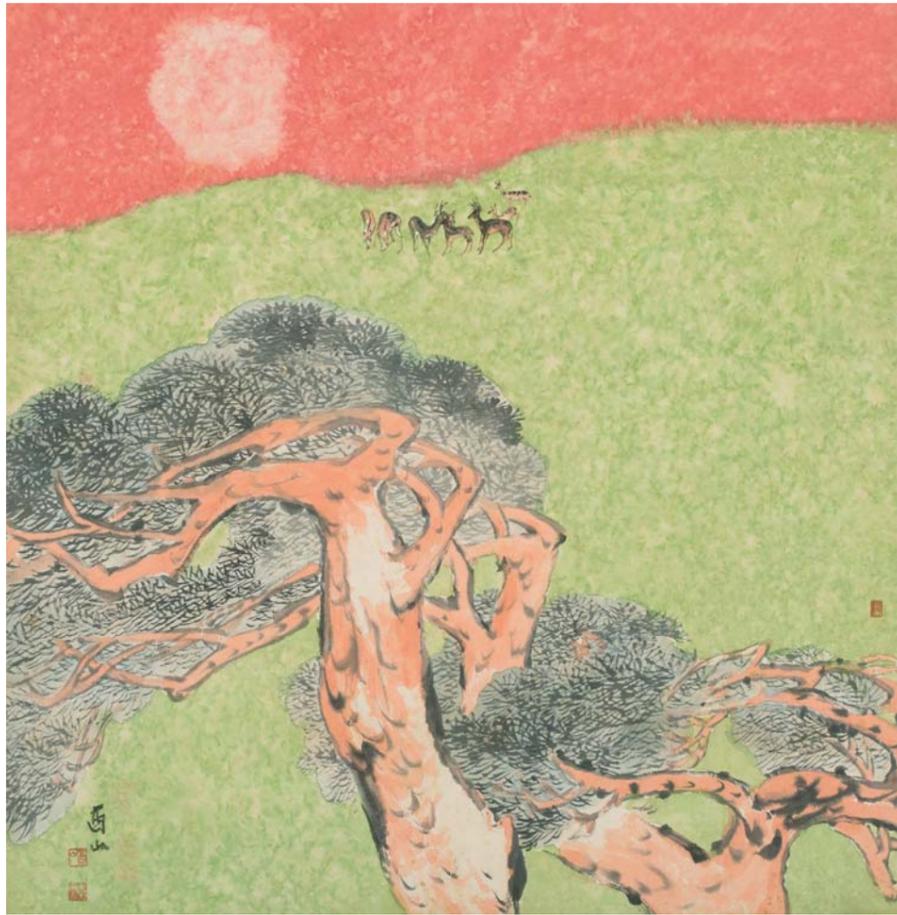
1957년(정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2.6x99.2cm

₩ 800,000-1,800,000





109

유산 민경갑 西山 閔庚甲

여흥驪興 / 1933-2018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66x66cm

₩ 1,500,000-3,500,000



110

윤재 이규옥 潤齋 李圭鈺

1916-1999

풍속도십곡병 風俗圖十曲屏

종이에 수묵담채 / 병풍  
122x32cmx10

₩ 1,500,000-3,500,000



111

우향 박래현 雨鄉 朴峽賢

1920-1976

비파 枇杷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4x76.7cm

₩ 2,000,000-4,500,000



113

심향 박승무 深香 朴勝武

반남 潘南 / 1893-1980

설청 雪晴

1966년(병오)  
종이에 수묵담채/ 가배첩  
119.3x119cm

₩ 2,000,000-4,500,000



112

월전 장우성 月田 張遇聖

단양 丹陽 / 1912-2005

말 馬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74x43.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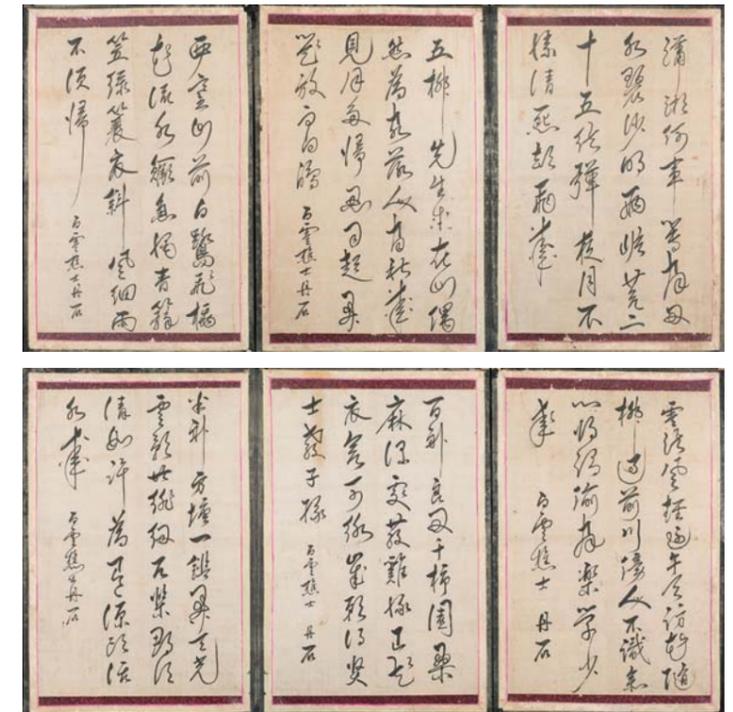
₩ 400,000-1,000,000

산수팔곡병 山水八曲屏·시고 詩稿 6폭

종이에 수묵, 종이에 먹/ 병풍  
66.7x52cmx8

₩ 4,000,000-10,000,000

두목杜牧의 「청명清明」, 장계長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 이백李白의 「산중대작山中對酌」, 전기錢起의 「귀안歸雁」, 정명도程明道的 「춘일우성春日偶成」, 김립金笠의 「상경眞景」, 장지화張志和의 「어부사漁父詞」와 작가미상의 시 한 편을 각 폭에 화제로 적은 산수 병풍이다.





115

혜촌 김학수 惠村 金學洙

1919-2009

춘경 春景

1978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5.2x67.7cm

₩ 300,000-800,000



116

구룡산인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鎭

안동安東, 성구聖九/ 1878-1968

화훼십곡병 花卉十曲屏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129x32.7cmx10

₩ 2,500,000-5,000,000



117

구룡산인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鎮  
안동安東, 성구聖九/ 1878-1968

모란 牡丹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2x123.3cm

₩ 1,500,000-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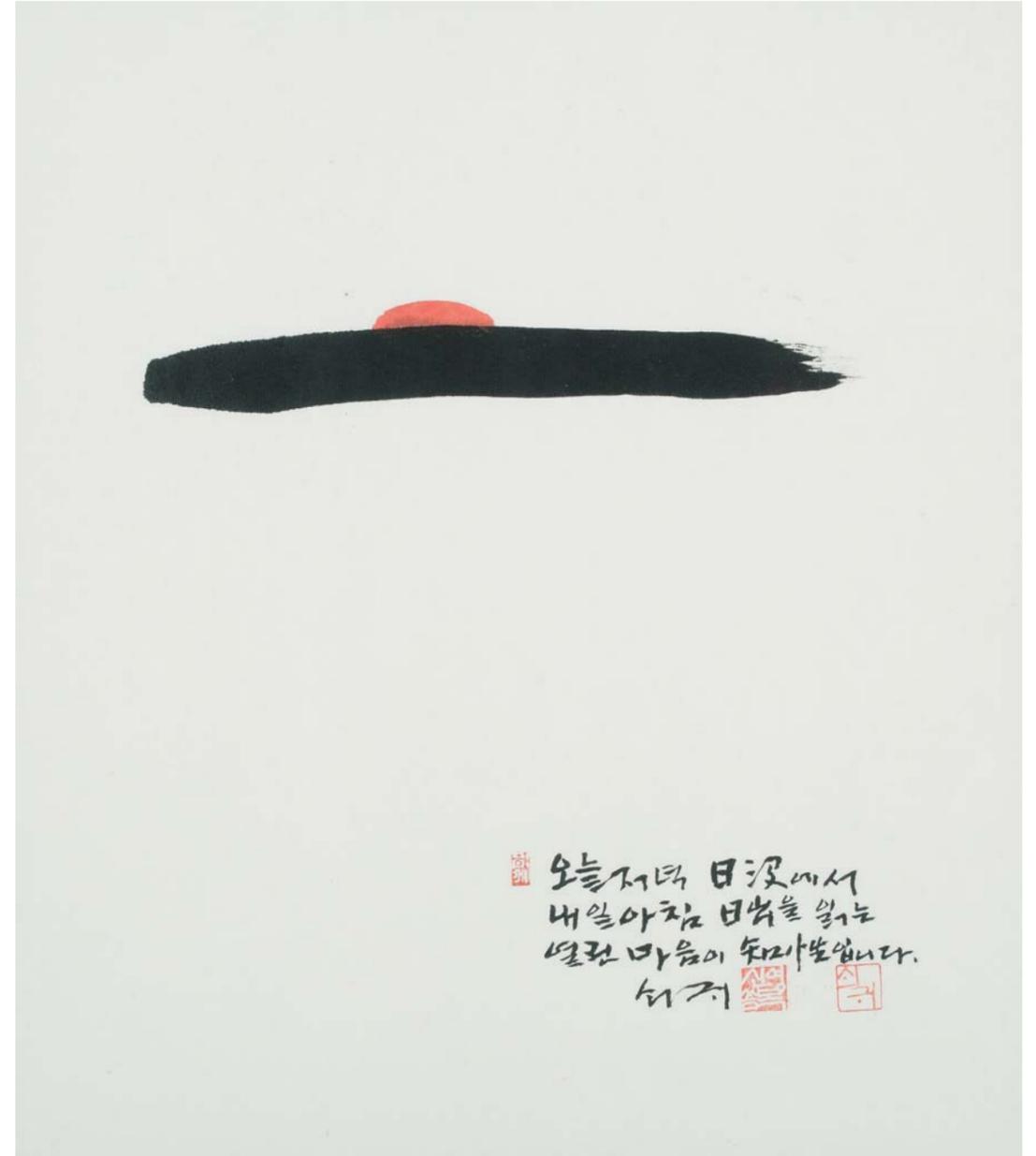


118

유산 민경갑 酉山 閔庚甲  
여흥驪興/ 1933-2018

길상 吉祥  
1987년(정묘)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7.5x37.5cm

₩ 1,000,000-2,300,000



119

쇠귀 신영복 牛耳 申榮福  
평산平山/ 1941-2016

지성 知性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6.2x31.8cm

₩ 2,000,000-4,500,000

120

박영선 朴泳善

1910-1994

5월 16일 새벽

캔버스에 유채/ 액자  
71.5x89.2cm

₩ 8,000,000-25,000,000

출품작은 박영선이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정변이 일어난 1961년 5월 16일 새벽,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한강인도교(한강대교)를 건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우측 하단에는 〈5월 16일 새벽〉이라는 제목과 함께 Y.S. Park이라는 서명이 남아있다.

박정희 정부는 민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근대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당대의 저명한 화가들을 지원하여 '민족기록화'를 제작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 구한말,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근현대의 주요한 사건이나 성과, 문화재 등을 주제로 작가 45명이 100여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박영선은 〈이등박문을 총살하는 안중근 의사〉(1976), 〈현충사〉(1973), 〈인천판유리〉(1975)의 세 작품을 남겼다.

출품작은 이번이 최초로 공개된 박영선의 작품으로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인 5.16 군사정변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박영선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나 정확한 제작년도는 알 수 없으나 민족기록화를 제작했던 당시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도판 | 〈한강대교 복구 준공식 사진〉, 1958.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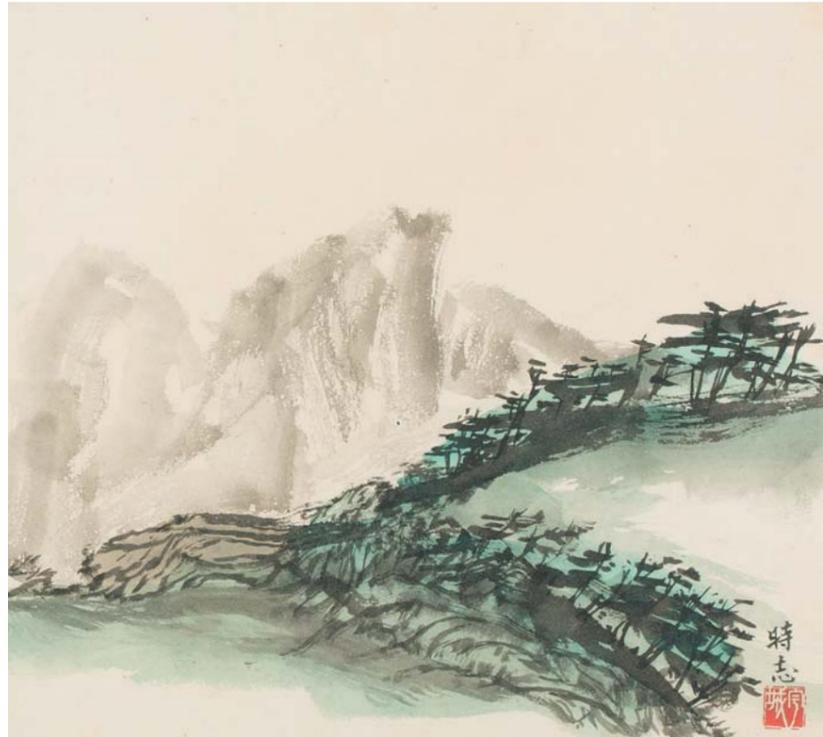


121

김원 金源  
1912-1994

소양강 다목적 댐  
1971년  
캔버스에 유채/ 액자  
25.8x43.5cm

₩ 900,000-2,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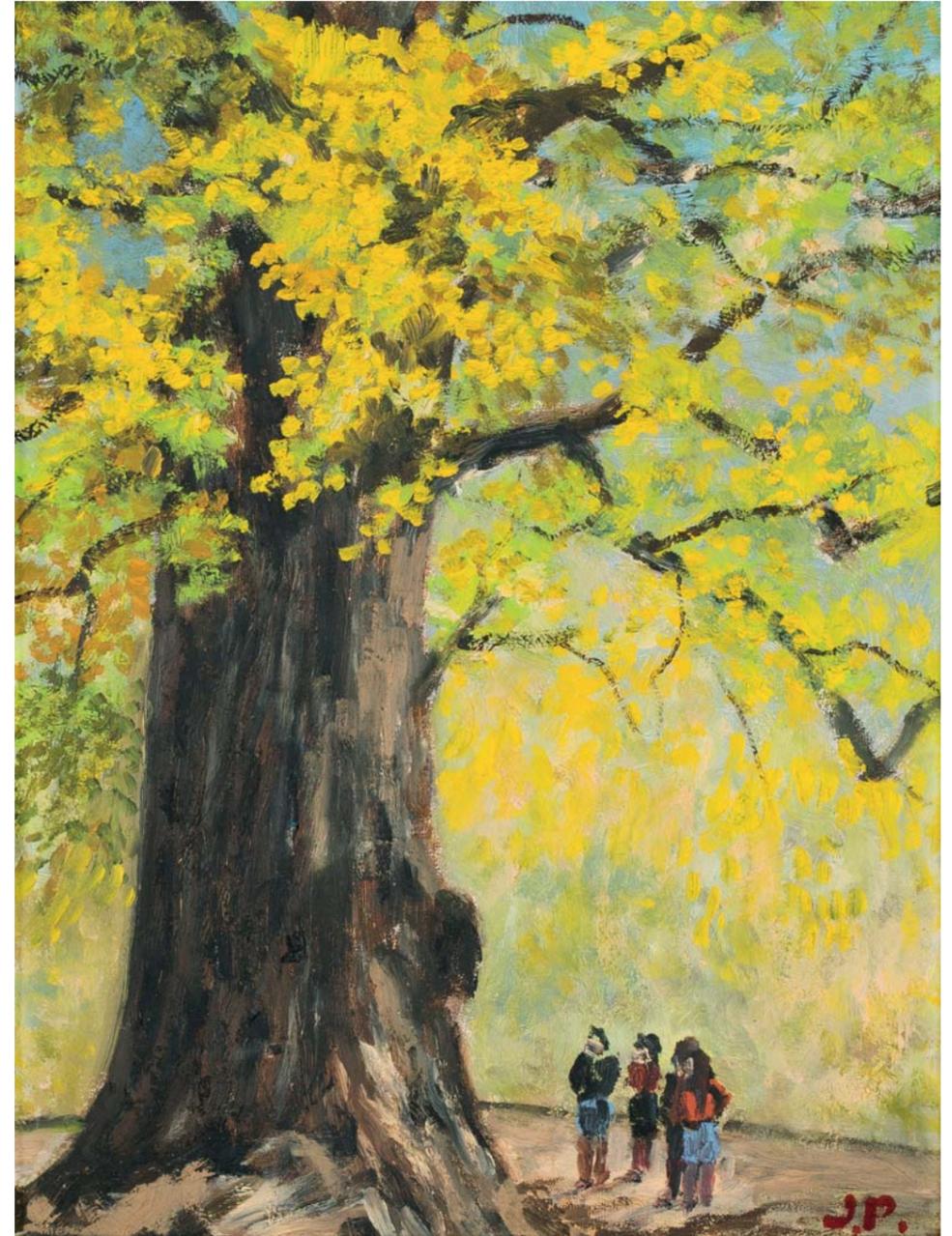


122

우성 변시지 宇城 邊時志  
1926-2013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4x27cm

₩ 1,000,000-2,300,000



123

윤정 김종필 雲庭 金鐘泌  
김해金海/ 1926-2018

거목 巨木  
1983년  
캔버스에 유채/ 액자  
27.3x40.9cm

₩ 3,000,000-6,000,000



작품수록처 | 『J.P. 畫帖』, 서문당, 1987, p.53

# 124

운정 김종필 雲庭 金鍾泌

김해金海/ 1926-2018

무용지용 無用之用

: 최재승 崔在昇(1946-)의원에게

1992년(임신)

종이에 먹/ 액자

66.7x31.6cm

안영 安鏡

1933-?

김종필 초상 金鍾泌 肖像

1998년

캔버스에 유채/ 액자

58.5x70cm

외 김종필 金鍾泌 관련 자료 일괄

₩ 4,000,000-9,000,000



김종필 국무총리 시절 중국, 일본의 서화가 및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그림과 글씨이다.

1. 코노 슈손 河野秋都(1890-1987) - 송림松林
2. 작가미상 - 수조樹鳥
3. 손옥천孫玉泉 - 산수
4. 진대경陳大慶·장곡년張穀年 - 산수山水
5. 왕덕경王廣德 - 목포도墨葡萄
6. 작가미상 - 글씨(중국노년서화연구회 북경시분회성립기념中國老年書畫研究會 北京市分會成立紀念)
7. 진국포陳菊圃 - 시고詩稿
8. 노탕평魯蕩平 - 시고詩稿
9. 류병삼劉炳森 - 맹호연 시구孟浩然 詩句



# 125

중수 박정희 中樹 朴正熙

고령高靈/ 1917-1979

편지 3건 : 노병목 盧炳穆 선생께

1965년, 1967년

종이에 먹/ 편지, 봉투

26.5x20cmx3

₩ 2,500,000-4,000,000



# 126

후광 김대중 後廣 金大中

김해金海/ 1924-2009

거산 김영삼 巨山 金泳三

김녕金寧/ 1928-2015

운정 김종필 雲庭 金鍾泌

김해金海/ 1926-2018

친필 서명 사진 親筆 署名 寫真

2006년

사진에 마커/ 액자

24.5x35.4cm

₩ 1,500,000-4,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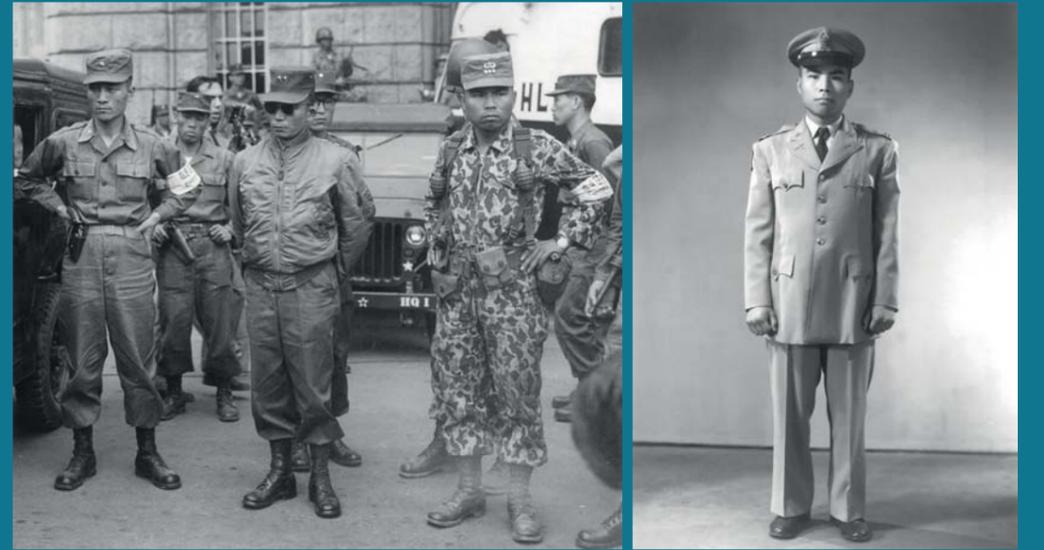


차지철 車智澈(1934-1979)  
사진·신분증·임명장 및 자료 일괄

43.9x49.3cm 외

₩ 4,000,000-10,000,000

- 1960년에 참가한 Ranger Class 단체사진
-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중앙청 앞에 선 박정희, 박종규, 차지철
- 1962년 검도 초단 합격증
- 1962년 태권도 3단 승급 합격증
- 1963년 중령 퇴역(전역) 증서
- 1964년 발행 철도정기승차증
- 1965년 파월해병 결단식 사진 6점
- 1967년 이천 영무정 사투 증 감사장
-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 경기도 제5지역구 대책위원장 임명장
- 1967년 국회의원 신분증
- 1968년 이천국민학교기성회장 증 감사장
-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선거 민주공화당 후보 추천장
- 1971년 발행 철도승차증
- 1971년 국회의원 신분증
- 1972년 서울 컨트리 클럽 회원증
- 1973년 국회의원 신분증
-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 민주공화당 후보 추천장
- 군부대 위문 사진 3점
- 차지철 전신 사진 2점
-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외 다수의 인물들과 찍은 단체사진
- 신원미상의 인물들과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 어머니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
- 미군들과 훈련을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
-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후보 추천장을 받는 사진
-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군부대를 시찰할 때 찍은 사진



128

백자청화모란문접시 白磁靑畫牡丹文楪匙

19세기  
3.1x14.7x7.5cm

₩ 3,500,000-7,000,000



130

포도문위원연 葡萄文渭原硯

돌에 조각  
3.5x20.8x13.6cm

₩ 400,000-1,000,000



129

분청사기덤벙음각파초문호 粉靑沙器陰刻芭蕉文壺

15-16세기  
10x10.8x5.3cm

₩ 1,500,000-3,000,000



131

운룡문단계연 雲龍文端溪硯

돌에 조각  
5x39x29.5cm

₩ 1,000,000-2,300,000



132

수곡 민종태 守谷 閔鐘泰

1915-1998

나전칠기사각반 螺鈿漆器四角盤

나무에 옷칠, 나전장식/ 오동상자  
2.2x19.5x19.5cm

₩ 500,000-1,500,000



133

평양 송수당 平壤 松壽堂

지승칠기원형반 紙繩漆器圓形盤

오동상자  
2.7x30.3x30.3cm

₩ 700,000-2,000,000



134

나주반달이 羅州櫃

나무에 금속장식  
80x45x102.5cm

₩ 3,000,000-7,000,000





135

담배합 煙草盒

금속재료  
5.5x9.5x6cm

₩ 500,000-1,500,000



136

은제묵상 銀製墨床

은예 조각  
5x8x4.1cm

₩ 1,000,000-2,500,000



137

칙임관 문관대례복 勅任官 文官大禮服 : 져쇼 지로 膳鉦次郎

오동상자, 102x48cm 외

₩ 3,000,000-7,000,000

조선총독부에서 검사, 판사를 역임한 져쇼 지로 膳鉦次郎의 대례복이다. 져쇼 지로는 1908년 한국 정부에 초빙되어 조선으로 건너와 대법원 검사로 보직되었다가 이후 조선총독부 검사, 부산지방법원 검사, 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 체결 후 대한제국에는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고 일본은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해 각종 제도와 법률을 손보고 관리들의 옷차림도 새롭게 규정하였다. 대례복의 형태는 서구식으로 바뀌었으며 조선 총독부의 관리들이 착용하던 의복에는 일본 정부의 상징인 '오칠동오七桐(오동나무)'가 새겨졌다. 출품작은 조선총독부의 검사와 판사를 역임한 져쇼 지로 膳鉦次郎의 문관 대례복으로 상·하의, 모자, 장갑과 의복을 보관하던 상자가 함께 남아있다.

대례복은 검은색 모직에 흰색 견직물로 안감을 덧대었으며 앞은 짧고 뒤가 긴 언미복의 형태이다. 상의의 전면과 후면, 칼라, 소매, 주머니 부분에 오칠동과 당초문이 화려한 금실로 자수되어 있다. 금단추 역시 오칠동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모자는 검은색 벨벳 소재에 의복과 같은 무늬의 금실 자수가 되어있으며 가장자리에는 흰색 깃털장식이 달려있다.

1911년 발행된 <제국복제요람 帝國服制要覽>의 [문관대례복 文官大禮服] 항목에서 출품된 대례복과 동일한 모습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도판 | <제국복제요람 帝國服制要覽>중 [문관대례복] 부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MEMO



## 주식회사 칸옥션 제32회 미술품경매

**전시**  
기획·총괄 고은비  
자료정리 고은솔  
대외협력 김봉수  
전시·진행 이정현, 임예훈, 임유지, 임재현

**도록**  
편집·해설 고은비, 고은솔  
사진 Lighthouse Studio 010.9050.7056  
디자인 디자인숲 02.323.8147

**경매** 2024년 4월 25일(목) 오후 4시  
칸옥션 전시장

**전시** 2024년 4월 15일(월) - 24일(수) 오전10시-오후7시  
칸옥션 전시장  
\* 토·일요일도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인쇄  
2024년 4월 15일 발행

발행처·인  KAN Auction

0314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4길 17, 107호(건국빌딩 건국관)  
☎ 02.730.8542 Fax 02.735.2566  
e-mail kan@kanauction.kr  
www.kanauction.co.kr

Copyright©2024 KAN Auction Inc.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은 주식회사 칸옥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오류를 알려 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 이 도록은 회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칸옥션 제33회 미술품경매 작품 위탁안내

**경매일정** 2024년 6월 27일(목) 예정  
**작품위탁일정** 2024년 6월 3일(월)까지  
**문의** 02.730.8542  
kan@kanauction.kr



## 사람과 역사, 문화의 빛, 예술의 향기

미술품경매 칸옥션에서는  
한국 미술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